



CHANEL.COM THE CHANEL MOMENT

BOY-FRIEND  
TWEED

L'INSTANT  
**CHANEL**

# Style

조선일보

SPRING  
2017



*Special*  
**ISSUE**  
진정한 소비자들을 위한 박람회, 1백년을 맞은 바젤월드  
**2017 BASELWORLD**





CHANEL.COM THE CHANEL MOMENT

BOY-FRIEND  
TWEED

L'INSTANT  
**CHANEL**

# 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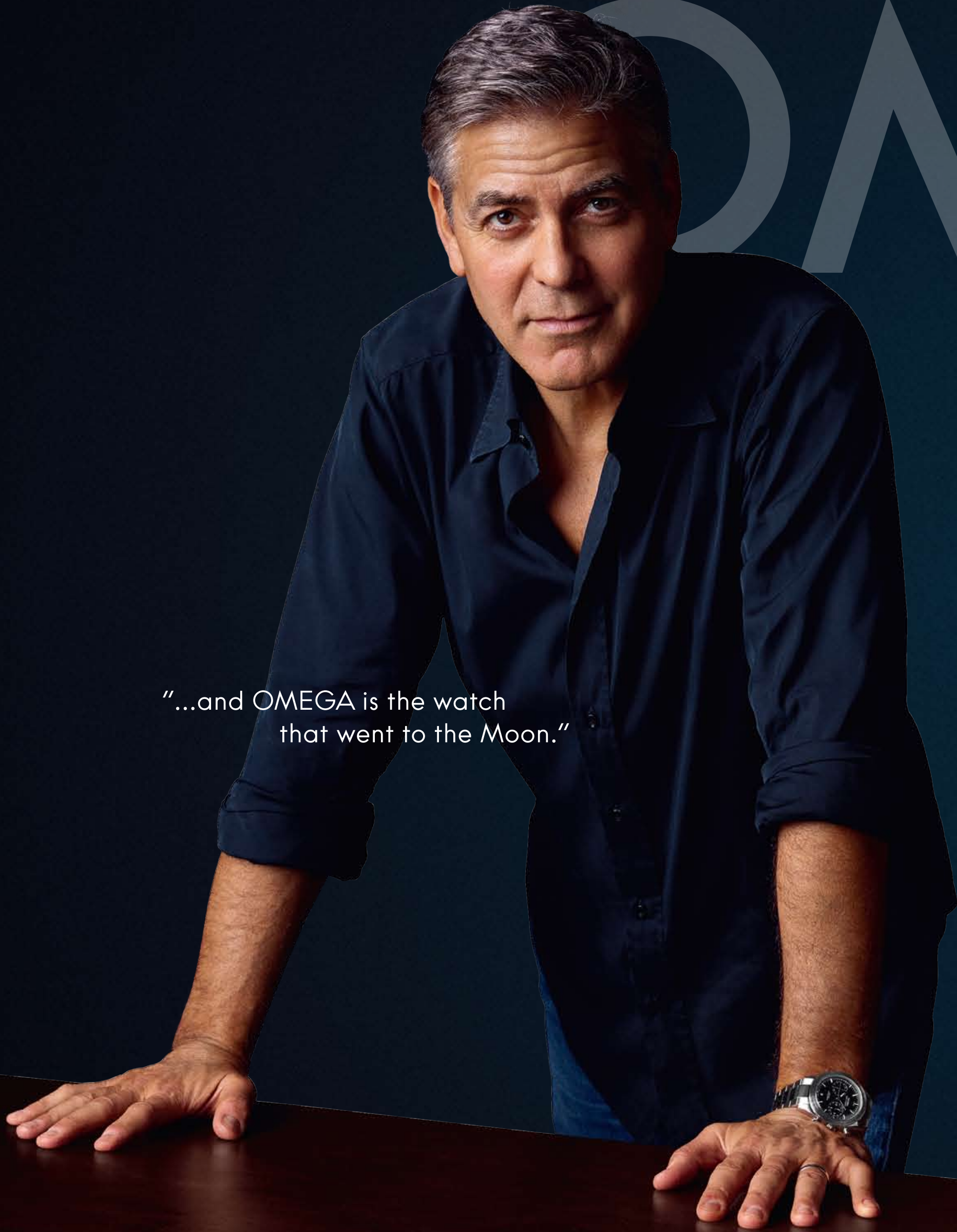
SPRING  
2017



*Special*  
**ISSUE**  
진정한 소비자들을 위한 박람회, 1백년을 맞은 바젤월드  
**2017 BASELWORLD**



# OMEGA



"...and OMEGA is the watch  
that went to the Moon."



*Speedmaster*

GEORGE CLOONEY'S CHOICE

#moonwatch



# Style 조선일보 Special Edition



**08 SHOW TIME** 그 어느 해보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 바젤에서 1백 회를 맞이한 바젤월드 가 활기찬 막을 올렸다.

**10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박람회, 1백 년을 맞은 바젤월드 2017** 올해 드디어 개최 1백 주년을 맞은 바젤월드 (Baselworld), 대중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열린 자세의 메이드 인 스위스 워치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진 바젤월드 2017을 바젤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 <스타일 조선일보-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7>을 통해 소개한다.

**12 THE EVENTS** 바젤월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젤 페어 이벤트 소식.

**14 A SPECIAL CELEBRATION** 2017년은 바젤월드 개최 1백 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많은 시계 브랜드들 역시 창립 기념일이나 특정 제품의 탄생을 축하하는 에디션들을 선보였다. 시계 컬렉터들의 위시 리스트에 오른 제품으로, 오직 2017년에만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도록.

**16 TIME IN STYLE**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이 바젤월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패션 하우스와 젊은 감성을 지닌 워치 브랜드들에선 매력적인 가격대에 보다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워치로 눈을 즐겁게 한다. 특유의 유틸리티와 토크 투는 에디션, 트렌드를 담아 일상에 감각적인 시간을 선사할 바젤월드의 색다른 묘미, 패션 코드 워치.

**26 FOREVER BRILLIANT**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경이롭다. 오직 여성들에게만 하려던 이 황홀함은 자마다

의 예술적인 터치로 더욱 극대화되어 바젤월드의 꽃으로 피어났다. 눈을 땔 수 없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2017년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

**32 KUNSTMUSEUM BASEL** 바젤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쿤스트뮤지엄 바젤은 이 도시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상징하는 드라마틱한 장소다. 쿤스트뮤지엄 바젤의 디렉터 요제프 헬렌슈타인이 오직 <스타일 조선일보-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7>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34 SPOTLIGHTS IN BASELWORLD** 부스 곳곳에서 들려오는 셔터 소리와 쏟아지는 플래시 시체. 워치메이킹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젤월드의 하이라이트 워치.

**42 ZAGATO** 1919년 자동차의 외관을 만드는 코치 빌도로 시작해 전 세계 하이엔드 카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독점적인 브랜드가 된 자гато(Zagato)의 지난 1백 년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사가 스위스 바젤 시 근교의 자동차 박물관 판테온(Basel Pantheon)에서 열렸다.

**44 CLICK A CALENDAR** 2017년 바젤월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의 신제품 리스트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 상황 악화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를 끌기 위해 스위스 워치 브랜드가 팔을 걷어붙였는데, 물론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의 가치와 퀄리티는 그대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스타일 조선일보>는 실제로 구매 가능한 시계를 소개하는 세일즈 캘린더 캠페인을 기획했다.

SHOW TIME	08
A SPECIAL CELEBRATION	14
TIME IN STYLE	16
FOREVER BRILLIANT	26
ZAGATO	42
KUNSTMUSEUM BASEL	32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영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jhyun@chosun.com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원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배 · 재판 | 사법 | 그레이스 인솔 | 타라티미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RADO TRUE OPEN HEART  
HIGH-TECH CERAMIC AND MOTHER OF PEARL. SERIOUSLY IRRESISTIBLE.

# RADO

SWITZERLAND

TIME IS THE ESSENCE WE ARE MADE OF

THE SWATCHGROUP KOREA

HOOR PASSION 롯데월드몰 02 3213 4168 AK PLAZA 수원부티크 031 240 118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 2164 519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경기점 의정부점 충청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킨텍스점 울산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스와치그룹CS센터 02 3149 9555



**Focus DIAMOND WORLD**

주얼리와 위지의 아름다운 절정을 보여주는 다이아몬드의 왕 그라프의 바젤월드 마스터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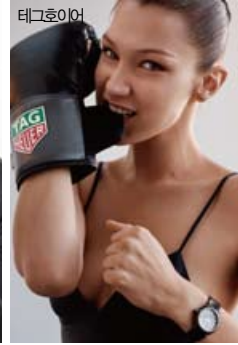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멀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라스. 총 84.34캐럿으로, 리오드, 오벨, 물방울 세이프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소용돌이 치는 배젤 디자인이 신비로운 스파이럴 워치. 핑크 머더오브릴 다이아몬드 핑크 샤프트 스트랩의 매치가 대담 나옴이 시연됐다. 무려 90.14캐럿에 달하는 진주란 쿠션 컷 핑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아름다운 카펫이 돋보이는 33.40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링. 멀티 세이프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롭형 이어링. 페르바체릴 유려한 구조로 디자인했다. 모두 **그라프**. 에디터 권유진

**Close-up NEW FACES**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엠베서더의 역할. 2017 바젤월드를 통해 공개된 시계 브랜드의 새로운 뮤즈의 매력적인 얼굴을 소개한다.



블라리



태그하이어



스와로브스키

먼저 **블라리**는 패션 아이콘, 존 코르타저레나를 새로운 워치 엠베서더로 선정했다. 미국 (보그)가 선정할,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 모델 4위를 차지한 그는 관능적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로, 한계에 대한 블라리의 끊임 없는 도전, 그를 위한 노력과 성취가 블라리를 선택한 이유이며 새로운 홍보대사로 합류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아이치아한 SNS 필로어를 가느리고 있는 파워 셀라브리티를 브랜드 엠베서더의 기준으로 제시한 케이스도 있다. 바로 스포츠 스타들을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내세워오던 **태그하이어**가 모델 지지 하디의 동생인 스무 살의 벨라 하디드를 브랜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맞이한 것. 그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적인 예술적 감성을 1천만 팔로워와 공유하고 있는 인물. 태그하이어는 신선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뽐내는 벨라의 영감을 통해 그녀의 취미에도 맞닿은 사진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와로브스키**는 미란다 케에 이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인 '스피클'을 구현할 모델로 칼리 콜로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현재 슈퍼모델로서의 커리어뿐 아니라 '로드 워드 칼리' 장학 재단을 설립한 자선가이며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현시대가 원하는 디지털에 능숙한 셀라브리티의 면모를 지녔기 때문. 스와로브스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폴린은 모데나티, 신선함, 자신감, 열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등 다양한 면모의 여성성을 보여주는 칼리 콜로스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며, 소셜 미디어 미켓을 통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스와로브스키의 모델로 제격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권유진



삼성



미카모토



**TIME TO ADVANCE**

올해는 전체적으로 부스의 이동이나 변화가 많았다. 아쉽게도 홀 1.1에 있던 부스뿐이 바젤월드를 떠나고, 기존의 부스들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줄여 새로운 브랜드의 부스가 들어선 것. कुछ 제일 반가웠던 새로운 부스는 단연 **삼성**이다. 바젤월드에서도 관심의 대상인 스마트 워치의 단독 부스였다. 부스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일반 부스를 2개 정도 합쳐놓은 듯 규모가 크다는 것이었다. 삼성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이 규모 큰 부스는 화이트 조명과 건축미가 느껴지는 구조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스마트 워치 하면 삼성과 애플이 선두 주자로 떠오르듯 삼성의 최신 스마트 워치인 '기어S3에 대한 세간의 큰 관심은 바젤월드 부스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오프닝 날에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에서는 기자와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삼성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존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처럼 관람객들이 길게 늘어사기도 했다. 세이코의 하이엔드 워치 라인인 **그랑 세이코** 역시 하의 독립된 브랜드로서 홀 1.1에 중심적인 위치로 등장했다. 세이코 CEO 신지 호토라는 '세이코의 독특한 매력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랑 세이코를 완전히 독립된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랑 세이코는 더 다양한 디자인, 소재, 가격대와 더불어 더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다이버 시계처럼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랑 세이코가 뛰어난 워치메이킹 기술과 상업적인 성공의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드롭형 진주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화이트 베일 컷트 사시시리로 독보적인 퀄리티를 자랑하는 진주 주얼리의 향연을 펼친 **미카모토**도 홀 1.1에 새롭게 등장을 들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에디터 권유진

**INSIGHT**

2017 바젤월에서 취재한 최신 트렌드 & 주목할만한 소식들.

**Hot issue A GOOD PARTNER**

두 기업의 만남은 하나일 때보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독특한 파트너십으로 바젤월에서 더욱 파워풀한 면모를 드러낸 워치 컬렉션 소식.

2017년 바젤월에서 선보인 칼라베레이션 워치 중 단연 화제를 모은 것은 위블로와 페라리의 만남이다. 위블로는 과거에도 페라리와 독특한 파트너십을 맺어 칼라베이션 워치를 선보여왔지만, 이번 에디션은 조금 더 특별하다. 바로 올해가 페라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 이를 기념해 선보이는 **위블로 테크 프래임 페라리 70주년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는 페라리 수석 디자이너 플라비오 만초니(Flavio Manzoni)의 자유 아래 제작된 특별한 타임피스로, 위블로의 강력한 엔진인 무브먼트에서 영감을 받아 페라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불어넣었다. 플라비오 만초니는 "위블로 테크 프래임 페라리 70주년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에 포함된 수많은 부품 중 단 1개의 작은 부품도 우연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위블로의 강한 심장인 칼라버 HUB6311의 완벽함을 극찬했다. 티쏘 역시 레이싱의 역동성을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세계 최대 모터쇼를 경주 대회인 그랑프리 모타사이클 레이싱과의 긴고한 파트너십을 표현한 **티쏘 T-레이스 MotoGP™ 오토메틱**이 바로 그것. 브레이마 디스크를 배치한 베젤, 타이어를 떠올리게 하는 로터와 워치 스트랩 등은 바이크의 스피드감을 다이나믹하게 담아낸 정교한 디테일이다. 스포시한 핑크 모양의 시계 박스는 소장 욕구를 더욱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서로 영감의 원천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있는가 하면,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제휴를 맺은 브랜드도 있다. 브라이틀링과 볼렉스 그룹 튜더의 기술 제휴다. 브라이틀링과 튜더는 브랜드 최초로 서로 일부 무브먼트 기술을 공유하게 된 것. 그 결과 올해 바젤월에서 브라이틀링은 튜더와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함께 제작한 **브라이틀링 슈퍼 오션 해리타지 II 크로노그래프 워치**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이는 더욱 파워풀해진 성능을 보장함과 동시에 5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시드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에디터 권유진



위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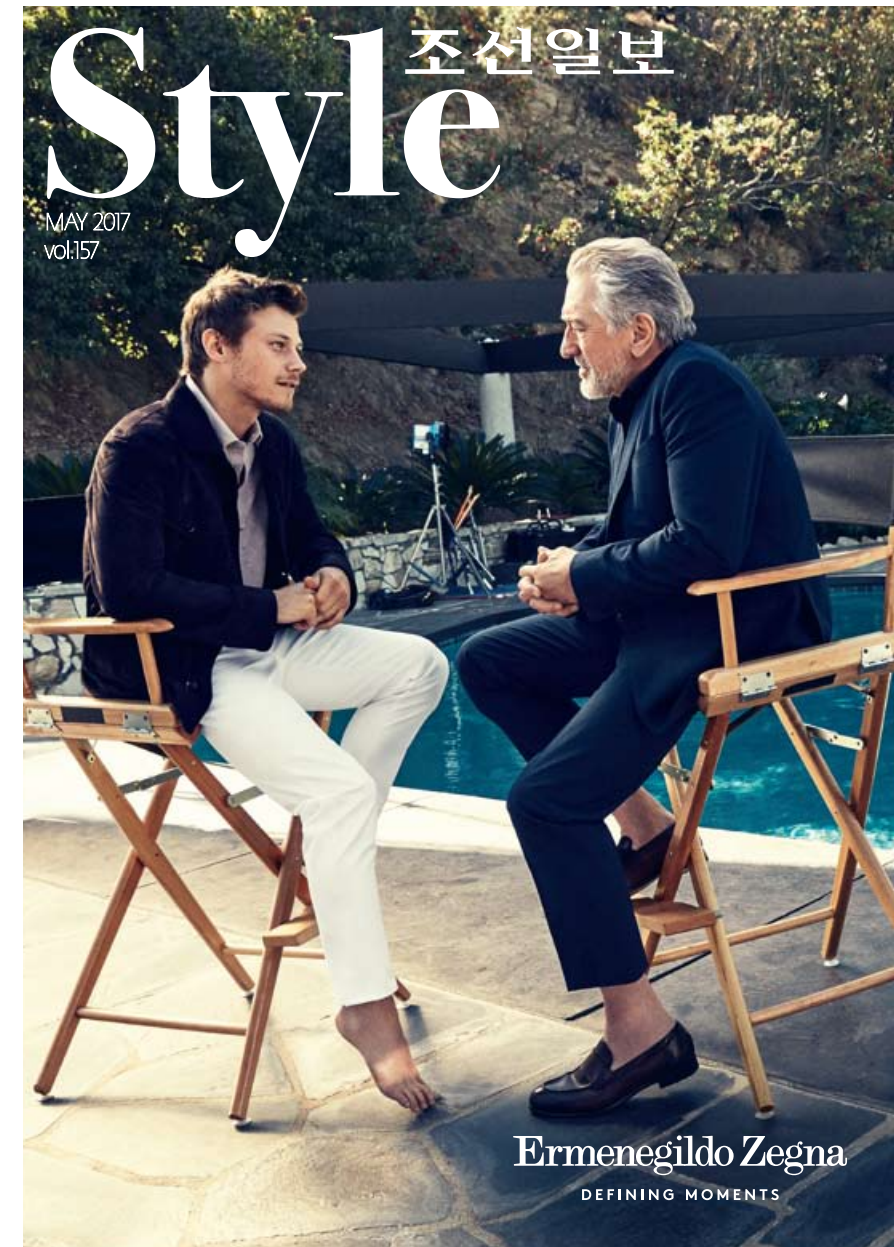
브라이틀링

**Event**

**오메가 로스트 인 스페이스,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를 기념하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어 우주인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을 최초로 밟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이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로 기록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세계 역사는 물론 오메가의 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워치인 스피드마스터가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메가는 바젤월에서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6일 런던 테이트 모던 뮤지엄에서 진행된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 기념 '로스트 인 스페이스' 행사에서는 몰리히자 브라

이언 코스 교수의 주최로 게스트들이 감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는 마치 우주 공간에 온 것처럼 비췄었고, 1957년부터 2017년까지 출시된 주요 타임피스 60개를 전시했다. 이날 달에 간 최초의 우주인인 버즈 올드린이 우주복을 입고 등장에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더불어 오메가의 명예 게스트 조지 클루니와 스피드마스터 VIP 팬인 배우 리브 타일러, 잼마 아터튼, 가수 펄시 로트 등 유명 셀라브리티들이 대거 참석해 런던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날 행사에 버즈 올드린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크로노미터를 착용했으며 조지 클루니는 스피드마스터 문페이즈를, 오메가의 CEO인 제이날드 애슬리만 역시 18K 골드 스피드마스터 문페이즈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에디터 권유진



**stylechosun.com**

평범한 일상 속, 보다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꾼다면 품격 있고 감각적인 매거진 <스타일 조선일보>의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와 소통하세요. <스타일 조선일보>는 단순히 럭셔리한 스타일과 정보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품격과 지식, 럭셔리 그 이상의 취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까지 함께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바로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blog.naver.com/stylechosun](http://blog.naver.com/stylechosun)



[facebook.com/stylechosunofficial](http://facebook.com/stylechosunofficial)



[instagram.com/stylechosun](http://instagram.com/style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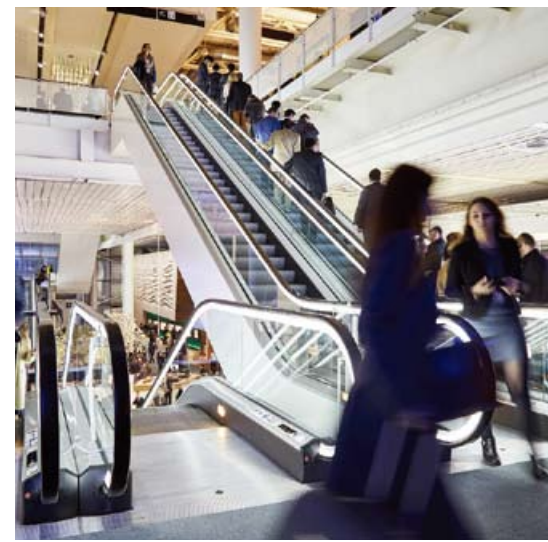




바젤월드가 개최되는 상징적인 건축물, 메세 바젤.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원형 구조물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트피스다.



BASELWORLD 조형 사인 아래, 오메가, 롤렉스, 위블로, 불가리 등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의 부스가 모여 있는 홀 1의 일구가 보인다. 바젤월드는 총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그중 럭셔리 브랜드가 모인 홀 1 전시관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롤렉스, 오메가 등이 있는 홀 1.0에서 그라프, 에르메스 등이 자리한 홀 1.1로 이동하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바젤월드는 그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바젤의 주요 교통수단은 트램이다. 바젤 페어 기간에는 이 트램이 시계 브랜드의 광고판으로 변신해 바젤 시내 곳곳을 누빈다.



*show*  
**Time**  
올해에도 어김없이 바젤 시내 곳곳에는 바젤월드의 기쁨이 펼쳐졌다. 그 어느 해보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 바젤에서 1백 회를 맞이한 바젤월드가 활기찬 막을 올렸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1백 회를 맞이한 2017년 바젤월드의 공식 오픈 날인 3월 23일, 메세 바젤 광장에서 관악대의 오픈닝 세리모니가 진행되었다.



바젤월드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바젤 시내의 아주 작은 호텔조차 만상이 된다. 숙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간에는 라인 강에 보트 호텔이 등장한다.



메세 바젤 센터의 주변 풍경. 오른쪽에는 리미타 호텔이 있으며, 각국의 시계 사전을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 및 볼 햇살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자리한다.



바젤월드 오픈 시간인 오전 9시, 15분 전부터 사람들은 긴 줄을 늘어서(시정해 9시 정각이 되면 신분증 휴대에 대한 공경을 받고 빠른 검문으로 입장한다).



바젤의 봄과 함께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시계 & 주얼리 박람회 바젤월드의 심의 풍경. 그 뒤로 상징적인 메세 바젤 건물이 보인다.



바젤월드가 개최되는 스위스 바젤의 중심에는 중부 유럽 최대의 강이자 글자의 수문인 라인 강이 흐른다. 강과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 곳곳에는 바젤월드의 상징인 파란색 깃발과 스위스 코기가 함께 펼쳐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날씨가 따뜻했다. 덕분에 바젤의 중심이 되는 라인 강 주변으로 볼거리를 즐기는 이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젤월드 홀 1의 2층인 홀 1.1로 올라가면 독특한 나무 외관의 에르메스 파빌리온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그라프, 팬디, 스와르츠스키 등의 부스가 홀 1.1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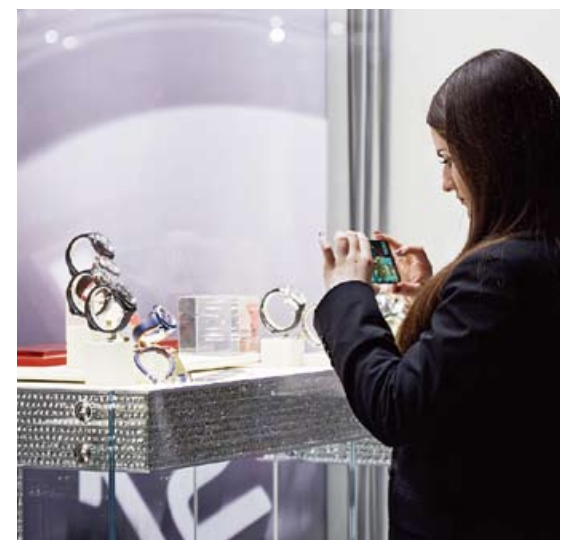
에디터 권부진



바젤월드는 유명 브랜드의 시계만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갖춘 개인이나 작은 공방들이 선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홀 1.2 레 아틀리에 존.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던 소식은 바로 지란지조로 국내 기업, 삼성이 새롭게 페어에 참여했다는 것. 3월 23일에는 기어S3 출시를 기념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baselworld2017 해시태그를 SNS에서 검색하면 약 5만 건 이상의 다양한 바젤월드의 소식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바젤의 명소 중 하나인 바젤 대성당의 약 1백 50개 계단을 따라 꼭대기로 올라가면 탁 트인 바젤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도시 풍경 중 저 멀리 메세 바젤의 지붕도 볼 수 있다.





#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박람회, 1백 년을 맞은 바젤월드 2017

올해 드디어 개최 1백 주년을 맞은 바젤월드(Baselworld). <스타일 조선훈보-바젤 스페셜 에디션 2017>은 올해의 바젤월드를 소비자를 위한 해로 정의한다. 중국의 부패 방지법과 유로존의 위기, 스마트 워치의 등장으로 전 세계 시계업계 전체가 어려워진 와중에 실용성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위기를 이겨낸 스위스 시계 브랜드는 발 빠르게 소비자에게 적합한, 불황을 이길 만한 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물론 기계적인 완성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대중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열린 자세의 메이드 인 스위스 워치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진 바젤월드 2017을 바젤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 소개한다.

“바젤월드는 단지 스위스 시계 브랜드만을 위한 무역 박람회 아닙니다. 스위스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국제적 산업의 쇼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8일 동안 사람들은 스위스 산업의 중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젤월드의 맥박을 느낄 수 있고, 미래의 비전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LVMH 시계 부문 회장 장-클로드 비버(Jean-Claude Biver)*

## 1백 년의 역사, 시계 및 보석 산업 프리미어 플랫폼으로서의 바젤월드

지난 2017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는 세계 시계 및 주얼리 산업의 프리미어 트렌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바젤월드 2017이 어김없이 오프닝을 알리며 1백 년의 역사를 이어갔다. 국내에서는 스위스 시계 박람회로 잘 알려진 이 박람회는 각국의 시계, 주얼리,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 시계 제조 관련 기계, 공급에 관련된 글로벌 전문기를 위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람회로 성장해왔다. 첫해인 1917년에 오직 29개의 스위스 브랜드만 참가했던 바젤월드는 2017년 2백20개의 브랜드가 참가하며 드라마틱한 역사를 써나가는 시계 페어가 되었다. 축구에 프리미어 리그가 있듯 박람회의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는 바젤월드는 수많은 박람회 중에서도 최고의 구단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난 1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 생각하고 적응해나가면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얻었고, 시계업계에서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람회 이기에 매년 바젤월드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바젤월드 매니징 디렉터 실비 리터(Sylvie Ritter)는 오프닝 스피치에서 한 세기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시계와 보석 장인들이 뛰어난 창조물을 바젤의 심장인 바젤월드로서 선보였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바젤월드 1백 년의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보석과 시계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동시에 흥미로운 에디션을 출시하며 기대감을 끌어낸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시간도 많았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고, 안정적이지 않은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시계 및 보석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 행사를 개최해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지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 발명하고, 적용하고, 현대화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얻어낸 성공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시회 위원장 에릭 베르트랑(Eric Bertrand) 역시 바젤월드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 위기

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성을 담아 설명했다. “최근 시계업계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와중에 생각보다 빨리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몇몇 브랜드는 바젤월드, 혹은 시계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를 지키며 중심을 잡은 브랜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시계 산업을 되돌아볼 때 이러한 침체가 지나가면 쉽게 성취하기 어려운 견고함이 남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난 후에는 전체 산업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시계 시장은 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참가한 모든 브랜드가 혁신적인 창조물을 만들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바이어와 미디어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바젤월드뿐입니다. 이는 바젤월드가 세계 시계와 보석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젤월드를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양보다 질리티를 추구하는 스위스 시계 시장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 다시 소비자를 생각하다

이렇듯 불황 속에서 다시금 의지를 다지며 본연의 가치를 드러낸 바젤월드 2017은 소비자에게 매우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이엔드 위치에 치중하던 시계 브랜드들이 다시 대중적인 시계, 당장 판매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적인 시계를 대거 선보인 것이다. 이렇게 시계 브랜드의 방향 전환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지난 2015년 1월 15일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정된 스위스프랑 환율 평가가 스위스 시계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데다 2016 스위스 시계 수출이 전년 대비 9.88% 하락하며 침체를 불러왔다. 안타깝게도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이야기되어온, ETA 무브먼트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스위치 그룹의 선언은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어떤 럭셔리 비즈니스도 피해 갈 수 없었던, 중국 소비자들이 자갑을 닫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부패 방지법 발표는 스위스 시계 시장에 카운터펀치 역할을 했다. 또 휴대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워치의 등장은 실제로 큰 약재는 아니었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투자자와 수집가에게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으로 각고의 어려움을 이겨낸 스위스 워치 브랜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소비자’라는 사실을 2017년 바젤월드로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소비자만이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완성도가 어우러진 제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다.

##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실용성

이러한 시기에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정확성과 내구성, 실용성과 같은 시계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브랜드들이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롤렉스는 큰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핸즈의 컬러를 변경하고 타기미터의 글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자외선과 마모에 따른 색 바래짐과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까지 더해졌다. 사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요소지만,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는 스위스 시계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이어간다. 항공 위치를 대변하는 브라이틀링은 자사 무브먼트를 장착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를 1천5백만 원대에 선보이며 파격적인 가격 책정 소식을 알렸다. 가볍고 실용적인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엔트리 위치는 2백만 원대에 출시한다. 클래식 위치의 대명사인 론진 역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인 쿼츠 무브먼트 위치를 선보였는데, 페퍼추얼 캘린더, 듀얼 타임 기능까지 갖췄다. 론진의 클래식한 외관에 오차 범위가 1년에 0.5초 이내에 불과한 정밀한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이 시계가 매력적인 이유는 유니크한 콘셉트와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백만 원대에 론진이라는 유서 깊은 브랜드 시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다양한 소비자를 경험한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이 기술적, 마케팅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ETA 소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제작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쏟으며 내실을 다진데다 트루비용, 에뉴얼캘린더와 같은 하이 컴플리케이션에 속하는 복잡한 시계 무브먼트를 적용하거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강화한 고급 시계 기술이 평준화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더 이상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기술력,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중을 위한 시계를 선보이는데 집중하게 된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젤월드의 본질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전사자, 바이어,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변화는 이 박람회의 숙명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바젤월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젤월드 매니징 디렉터 실비 리터(Sylvie Ritter)*

## 소비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위스 메이드 워치

셀프로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장착한 시계가 대거 등장한 것도 엄청난 발전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무브먼트와 케이스, 스트랩까지 하나의 완전체로 여기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세계에서 사용자에게 매장에 찾아오지 않고 스스로 스트랩 교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워블로와 블랑팡, 오메가 등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변경 가능한 스트랩을 세트 구성한 시계를 선보인 것은 소비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임종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스틸 소재가 보다 넓고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스틸을 가공하는 기술력이 높아진 것도 스틸 위치가 증가한 이유겠지만, 본래 골드만 선보이던 모델들의 스틸 버전도 다양하게 출시한 덕분에 가격 민감도는 더 낮아졌다. 카본과 DLC 코팅, 세라믹, 실리컨 밸런스 스프링 등 고가의 특수 소재를 사용한 워치 역시 가격대가 낮아졌다. 수년간 이어져온 빅 다이얼의 트렌드 대신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41mm 케이스 사이즈의 실용적인 시계가 브랜드마다 다시 등장한 것도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한 요소다. 실용성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트렌드가 중심을 이루자 미드 하이엔드 라인을 구성하는 브랜드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는데, 론진과 태그호이어 같은 브랜드의 국내 시장 약진도 기대해볼 만하다. 고급 시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성숙도를 견인하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러한 중견 브랜드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긍정적인 현상이다.

지난 2016년에는 바젤월드 프레스 컨퍼런스를 라이브로 본 뷰어가 1만1천여 명이었지만 올해는 8만6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증가해 디지털 플랫폼의 파워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 도래한 디지털 시대는 로컬과 글로벌의 구분, 세대의 구분, 산업의 구분까지 순식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네트워크와 디지털, 데이터의 접근성과 사용성, 스피드가 경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시계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신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초 단위의 사회 변화 속에서도 전통 수공예에 대한 열정이 담긴 품질 뛰어난 시계와 주얼리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스위스 시계 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와중에도 매년 새로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스위스 시계 산업, 그리고 바젤월드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실용적인 매력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SI** 에디터 배민준(배젤 현지 취재)



BREGUET



**브레게, 마린 워치 군함을 타고 역사 속으로**  
세계 역사의 산증인인 브레게의 히스토리를 아우르는 특별 전시는 매년 바젤월드에서 만날 수 있는 모티프다. 브레게는 올해 1815년 프랑스 왕정 해군을 위한 공식 크로노미터 메이커였던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창조한 마린 워치의 역사를 고스란히 소개했다.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 전시에서는 과거의 태양 시계부터 올해 새롭게 출시한 '마린 에코시움 미상 5887'까지 선보여 브레게의 독자적인 유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태그호이어, 시계에 대한 젊음의 상징**  
뉴욕 출신의 아메리칸 스트리트 아티스트 알렉스 모노폴리가 이색이슬한 자질을 타고 태그호이어 부스 벽면으로 올라갔다.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관중 앞에서 이 젊은 예술 선봉가는 부스 정면에 스프레이로 그래피티 아트워크를 선보였다. 라이브 페인팅을 통해 자신만의 도전 정신을 태그호이어의 바젤월드 무대에 대한 그는 부스 벽면에 아이코닉한 'Alec'을 즉석에서 그려 넣었다. 이와 관련해 태그호이어 CEO 칼-클로드 비버는 "젊음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 the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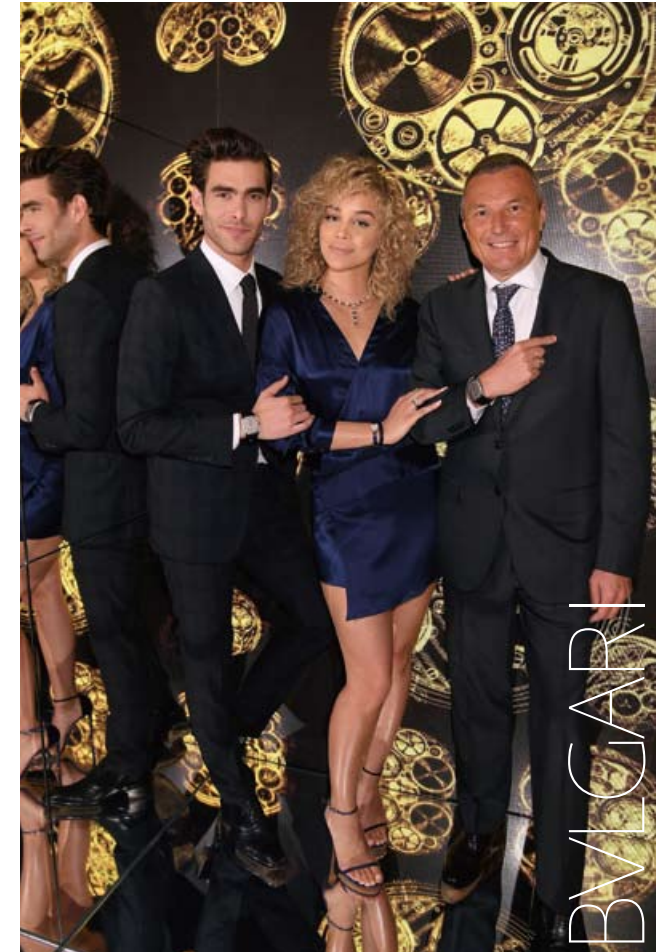
바젤월드에선 단순히 시계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존은 물론 각종 파티와 퍼포먼스 이벤트도 가득하다. 바젤월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젤 페어 이벤트 소식.  
*photographed by koo eun mi*

**삼성, 최신 스마트 워치를 체험하다**  
스마트 워치는 세계 역사에서도, 바젤월드에서도 늘 뜨거운 화두다. 특히 올해 바젤월드에는 스마트 워치 단독 부스로 국내 기업인 삼성이 참여해 최신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S3'와 콘셉트형 모델인 '스마트워치'를 공개하며 많은 관심과 관람객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이곳에서는 갤럭시 S3는 물론 기어 VR 4D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존을 마련해 이를 체험하기 위한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실제 시계와 스마트 워치를 결합한 형태의 콘셉트 워치는 스마트 워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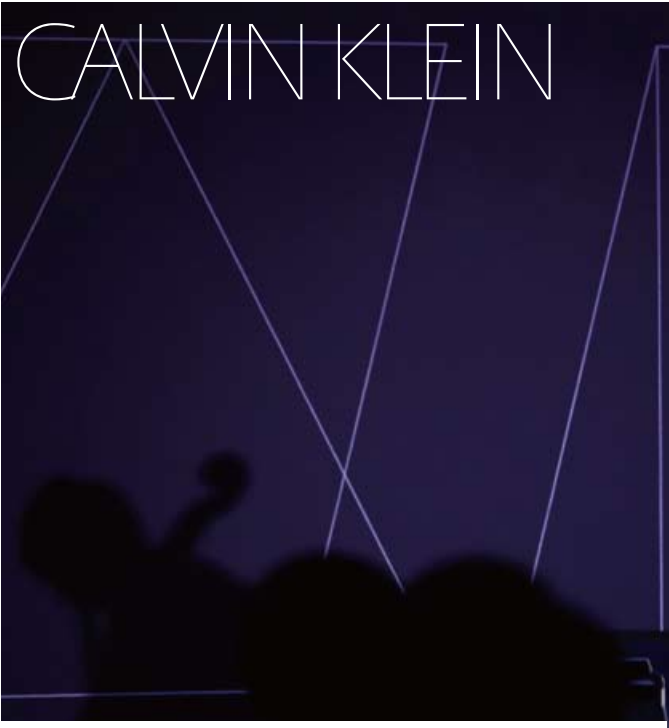


DIOR

**디올, 오프 쿠티르 드레스의 환연**  
디올 부스의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름답고 우아한 디올의 오프 쿠티르 드레스가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탄생해 부스를 가득 채운 것. 이와 함께 디올의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를 함께 디스플레이해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시 공간으로 손꼽혔다.



**블가리, 거물급 스타들이 한자리에**  
블가리는 2017년 바젤월드의 개막에 앞서 3월 22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해 윌트-신 워치 부문에서 세계 기록을 달성한 옥토 피니시 오트모데를 공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글로벌 앰배서더들이 총출동했는데, 대표적으로 엑스의 전 멤버로 유명한 크리스 우가 중국 블가리 워치 앰배서더로, 세계적인 모델 존 코르타제베와 영화 <스피더 맨>의 히로인 로라 해리어가 글로벌 워치 앰배서더로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캘빈클라인, 뮤지엄과의 예술적인 조우**  
3월 24일 오후 7시, 캘빈클라인 주얼리 앤 워치의 2017년 광고 캠페인의 시적을 축하하는 디너파티가 개최되었다. 그것도 바로 바젤 컨스트럭처의 새로운 빌딩에서 현대미술 작품으로 가득 찬 컨스트럭처의 신관의 절제된 우아함과 미니멀리즘의 상징인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의 철학이 서로 어우러져 품격 있는 파티가 완성되었다. 이 디너파티에서는 미국 뮤지컬 아티스트 켈시 루의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다.



**제니스, 빈티지 카와 의 여행**  
제니스 부스에는 유독 남성 관람객들이 많다. 유심히 지켜보니 제니스 부스에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가 한창이었다. 부스 안에서 제공하는 그루밍 서비스로 수염을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고, 부스 밖에는 기념 사진을 찍어 인화할 수 있는 포토 부스도 있다. 어디 이뿐만인가. 오프로 예약하면 제니스 X 우버의 빈티지 카로 바젤 곳곳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는 작년에도 이어졌는데, 다음 해에는 또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지 사투가 대가 된다.



**에르메스, 1시간의 즐거움**  
바젤월드가 오픈하기 1시간 전인 오전 8시, 이 시간을 기다리며 에르메스가 아침 식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기다림의 미학을 담은 특별한 시계인 레호 앙파사르드를 선보인 에르메스는 1시간 동안 바젤 페어 오픈 시간을 기다리며 따뜻한 커피와 빵 등을 즐길 수 있는 아침 식사와 특별한 퍼포먼스를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저글링 예술가들이 시계를 저글링하며 사랑스럽고 특별한 서프라이즈 공연을 펼쳐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즐겁게 했다. 9시 정각이 되자 레호 앙파사르드의 알람 소리를 연상케 하는 맑은 벨 소리가 울리고 바젤월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위블로 테크프래임 페라리 70주년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위블로와 페라리, 이 두 브랜드의 만남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는가. 남자들의 영원한 로망인 페라리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이 특별한 타임피스가 국내에 입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페라리의 수석 디자이너 폴라리오 만초니가 디자인한 이 제품은 시계의 영감을 주는 위블로의 무브먼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페라리만의 파워풀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강렬하고 대담한 외관 디자인이 시선을 압도한다. 시계 측면에 위치한 푸시 버튼을 통해 스트랩을 쉽고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데, 실제 페라리 485 모델에 사용한 레드 컬러를 더해 디자인적 미학까지 충족시켰다. 이 모든 설정을 다 떠나 다이얼 위에 새겨진 페라리의 위블로 로고, 백 케이스에 새긴 Ferrari 70 Years 문구인으로도 페라리와 위블로를 사랑하는 남성 마니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 문의 02-2118-6208



(왼쪽부터) **샤넬** 화인 주얼리 **프리미어 캐발리아 스퀘어레틀 하이 주얼리** 1987년, 샤넬이 탄생시킨 첫 번째 시계, 프리미어. 오직 여성을 위해 만든 이 최초의 시계는 샤넬 N5 향수 병 마가라와 반동 광경의 모양을 본떠 디자인한 매우 모던하면서 여성스러운 제품이다. 올해는 프리미어 탄생 30주년을 맞아 샤넬 인하우스 칼리버 무브먼트를 적용한 다양한 프리미어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 스퀘어레틀은 샤넬의 상징적인 캐발리아 꽃 모티브로 디자인한 이 시계의 오랜 전통은 물론 현대의 뛰어난 기술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타임피스다. 문의 02-3442-0962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TGM 비블로**로 알려진 봐드 한눈에 에르메스 시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DNA가 확실한 케이프 코드 올해 탄생 26주년을 맞았다. 에르메스가 선보인 신제품 중 가장 핵심인 케이프 코드는 무엇보다 에르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스템에 주목해야 한다. 정교하게 시계의 무브먼트를 완성해둔 가죽 스트랩 역시 모든 공정이 에르메스 공방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비블로에서 선보인 투톤 컬러 스트랩은 보기에 세련된 뿐 아니라, 에르메스 가죽 공방의 정교한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은 제품이라 더욱 가치 있다. 문의 02-3015-3281

# a special Celebration

2017년은 바젤월드 개최 1백 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많은 시계 브랜드들 역시 창립 기념일이나 특정 제품의 탄생을 축하하는 에디션을 선보였다. 시계 컬렉터들의 위시 리스트 물망에 오른 제품으로, 오직 2017년에만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도록.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론진 클래식스 헤리티지 60주년 1957-2017** 올해 창립 1백85주년을 맞이한 론진은 역사적인 한 해를 기념하기 위한 전설의 위자를 부활시켜 복각 워치 트렌드의 주역이 되었다. 특히 론진의 베스트셀러 워치인 클래식스 워치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스위스 본사에 보관되어 있는 클래식스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출시하는 헤리티지 60주년 제품은 오리지널 버전과 동일하게 뒷면에 클래식스 선할 모터브를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브라운 가죽 스트랩의 빈티지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시계로, 배우 케이프 원줄러이 직접 선풍해 착용할 정도로 남성은 물론 여성이 착용해도 멋스럽다. 문의 02-3149-9632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6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스피드마스터 외관 전편을 장식한 오메가 부스인 발도 수 있듯, 2017년은 오메가의 아이코닉한 시계인 스피드마스터의 해다.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아 이 컬렉션은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될 정도로 마니아층이 매우 두꺼운 제품, 바젤월드에서 가장 큰 관심과 인기를 끈 스피드마스터 60주년 에디션인 독자적인 디자인 스킴을 적용해 과거 오리지널 시계를 매우 정화하게 구현, 말 그대로 스피드마스터 오리지널 버전과 똑 똑같은 제품이기에 스피드마스터에 열광하는 마니아라면 이 시계는 반드시 소장해야 한다. 문의 02-511-5797

**태그호이어 칼리버 5 스틸 41mm** 태그호이어 마니아라면 링크 컬렉션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 1987년부터 이어져온 태그호이어의 아이코닉한 링크 디자인은 특유의 5X형 링크 브레이슬릿을 통해 한눈에 이 컬렉션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태그호이어 링크 워치의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이번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새로운 버전의 링크는 기존 제품 대비 41mm로 커진 사이즈와 보다 절제되고 미니멀한 디자인, 그리고 태그호이어의 강한 엔진인 오토매틱 칼리버 5를 장착해 보다 더욱 강렬해진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로 말이다. 링크의 상징적인 브레이슬릿은 아이코닉한 동시에 브레이슬릿 위아래와 양쪽 면이 곡선 형태로 이루어진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손목에 착용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자랑한다. 문의 02-548-6020 **에더리 권유진**



photo by frame studio



**06 이번 바젤월드 신제품 중 가장 기대해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 유선과 새로운 혁신 사이에서 균형(balance)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올해 키워드입니다.

**07 올림픽 공식 타임퍼머서 올림픽과 오메가는 뭘 수 없는 관계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올림픽은 늘 오메가에 있어 매우 흥미진진한 이벤트입니다. 최근 오메가는 평창 동계올림픽 D-1년 카운트다운 클락 제막 행사와 함께 평창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내년엔 한국에서 비중 있는 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개최될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활동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더리 권유진**(바젤 현지 취재)

## INTERVIEW

# Innovation with Heritage

올해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자, 새롭게 부임한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이 CEO로서 처음 바젤월드를 맞이한 해다. 바젤월드를 이끌어가는 중심이자 워치메이킹 역사를 유지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을 이어나가는 오메가의 수장이며, 20년 넘게 오메가에 몸담은 진정한 '오메가 맨'인 그와 함께 오메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Raynald Aeschlimann**



1 오메가의 새로운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 2 2017년은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의 해로, 오메가 부스는 이를 기념하는 디스플레이로 꾸몄다. 3 오메가 빈티지 워치를 그대로 재탄생 선보이는 '오메가 트릴로지 6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중 스피드마스터 워치. 4 스피드마스터 시계 컬렉터들이 열광할 '스피드마스터 레이스 마스터 크로노미터'. 5 브라시 처리된 아이스 블루 컬러의 다이얼이 돋보이는 '스피드마스터 38mm'.



### 올림픽 공식 타임퍼 오메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욱 기대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올해, 아직 12개월이 남은 시점인 지난 2월, 올림픽 공식 타임퍼인 오메가의 타임퍼는 발차 시작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D-1년 카운트다운을 기념하기 위해 오메가 서울광장에 높이 4.3m, 무게 8톤의 '오메가 키퍼 카운트다운 시계 탑을 세운 것. 이 D-1년 카운트다운 클락 설치를 기념해 오메가는 서울광장에서 이 특별한 시계의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 오메가의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은 이날 행사에서 "오메가는 지금껏 27번의 올림픽에서 공식 타임퍼로 참여했습니다. 최고의 강을 위해 피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을 위해 정확한 타임퍼를 하는 것이 오메가의 사명입니다." 라고 오메가의 오랜 타임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IOC 조정위원장 구날라 린드버그는 "그런 타임퍼를 기술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오메가가 오랫동안 타임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타임퍼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화, 경제, 환경, 평화와 올림픽의 조화를 도모하는 행사가 되도록 자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축제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제막 행사에는 한국 드림 연주자들과 무용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많은 호응을 얻었고, 뒤이어 커튼이 열리고 폭죽이 터지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3백65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 특별한 행사와 함께 오메가는 주요 인사들에게 라스트 랩 셀을 선물했는데, 스위스의 라스트프에서 손수 제작한 이 셀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의 종목에서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릴 때 쓰이는 것이다. 최신 타임퍼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 이 라스트 랩 셀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전통을 나타낸다. 현재에도 서울광장에는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는 그날까지, 모두의 살피는 마음을 담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1932년부터 시작된 오메가의 타임퍼 역사에 28번째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이다.

### 지상스러운 태극기의 물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스페셜 타임피스

카운트다운 제막 행사를 기념해 오메가는 '스피드마스터 오션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이번 바젤월드 오메가 부스에도 전시되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2천18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대한민국의 지상스러운 태극기를 상징하는 선명한 블루와 레드 컬러가 돋보인다. 광택이 나는 블루 세라믹 다이얼과 로동으로 도금한 인덱스, 가죽을 붙인 화이트 슈퍼-루이노브 코팅 디테일,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고무를 결합한 블루 세라믹 링을 장착한 단방향 회전 방지 다이얼 베젤이 특징이다. 케이스 백에는 에디션 넘버와 함께 'PyeongChang 2018' 문구와 함께 동계올림픽 로고를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300을 탑재했고, 여분의 스틸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포함한 스페셜 박스를 함께 제공해 전 세계 시계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맨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디 셀러리아 스트랩** 유 패시 워드를 가장 스트랩이라는 새로운 액세서리 카테고리를 탄생시킨 펜디. 이번 바젤월드에서 들은 더욱 빈가운 소식은 수많은 미투 상품을 생산해낸 이 유명한 가장 스트랩을 마침내 시계 스트랩으로도 선보였다는 것. 펜디 스트랩 유를 축소해놓은 듯 그대로 재현한 사탕스러운 컬러 스티드 장식의 더블 가죽 스트랩이 포인트로, 액세서리와 워치의 매력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이 워치 스트랩은 가장 스트랩을 자유롭게 교체하듯 원본이 사탕으로 손쉽게 다른 스타일의 스트랩으로 바꿀 수 있어 더욱 스타일리시하다. 문의 02-3284-1300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엔들레스** 캘빈클라인 워치의 가장 큰 매력은 미니멀리즘이다. 올해 캘빈클라인 크라이아티브 디렉티브 세르게이 말라틴 리프 시몬스의 영향으로, 'Youth'라는 콘셉트에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는 기존 엔들레스 컬렉션 특유의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스티치 장식과 핑크, 페트롤 그린 등 다양한 컬러를 더한 가죽 밴드를 매치해 젊은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여성의 손목을 더욱 가볍게 보이게 하는 0.9mm의 26mm 사이즈로 출시하고, 무엇보다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로 선보여 10~20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문의 02-2143-1829

**티소 테이마-티** 티소의 기술력과 전통, 하이 팔레티의 주위 장식, 사탕스러운 디자인을 모두 갖춘 여성 시계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 1960년대에 선보인 티소 여성용 골드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쿼츠 형태의 독특한 케이스와 다이얼은 인텍스가 돋보이는 시계로, 여기에 다이아몬드 세이프 라그와 천연 달걀진주 펜던트가 달린 골드 체인 장식으로 클래식한 오리지널 시계 디자인에 화려함을 더했다. 문의 02-3467-8795

**리도 트루 센서인 컬러즈** 세라믹 소재 분야에서 리도를 따라갈 브랜드는 없다. 특히 세라믹에 다양한 컬러를 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올해 리도는 아주 선명하고 매력적인 그린, 블루, 브라운 등의 새로운 컬러를 인한 트루 센서인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포레스트 그린, 앙키 블루, 초콜릿 등 컬러링에서부터

더 넘는다. 매력이 느껴지는 이 새로운 세라믹 컬러는 트루 센서인의 정제된 디자인과 4.9mm라는 아주 얇은 두께의 케이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문의 02-2639-1964

**구찌 타이포스 & 주얼리 르 미르세 데 에르메** 올해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패션 워치 중 가장 인상적인 피스를 꼽으라면 단연 구찌다. 요즘 패션을 뒤론두고 있는 구찌 패션 하우스의 수장,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펜치라면 이 타이포스들에 영감을 수밖에 없다. 그간 워치 디자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눈을 휘둥그레하게 할 만큼 큰 다양한 디자인과 미켈레의 특기인 다양한 동물 모티프의 알라스트, 자수 디테일이 시계 다이얼과 스트랩에 그대로 녹아든 것. 미켈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티프인 강렬한 범 알라스트를 더한 이 시계에는 다이얼부터 스트랩까지 길게 이어지는 한 마리의 범을 표현했는데, 모두 동일한 가죽 소재를 사용해 특별함을 선사한다. 문의 02-551-7045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시크** 시크(Siick)라는 제품명처럼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디자인에서 시크한 오일을 발산하는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의 베이스 컬러 워치. 시선을 끄는 옅고 가벼운 다이얼이 모던한 스타일을 극대화한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애플리케이션 공법으로 컬러를 입혀 마치 바젤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하고, 시계에 전통적으로 장식하는 베젤을 과감히 생략해 더욱 옅고 가벼운 케이스로 탄생했다.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대접의 워치로 추천한다.

**해밀턴 밴츨라 클래식** 시계 케이스는 동글대는 편견을 던져낸 켄,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삼각형 케이스의 밴츨라.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두꺼운 메이징을 형성하고 있는 밴츨라가 올해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가장 다채로운 버전의 모델을 선보였다. 그중 절고 해사-비한 반전을 더한 블루 데님 버전은 영리한 클래식이자 캐주얼한 감성을 지닌 찬바자처럼 어느 때에 매치해도 스타일리시하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문의 02-3149-9593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 Time in style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들이 바젤월드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패션 하우스와 젊은 감성을 지닌 워치 브랜드들에서 매력적인 가격대에 보다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워치로 눈을 즐겁게 한다. 특유의 워트와 톱톡 튀는 에너지, 트렌드를 담아 일상에 활기찬 시간을 선사할 바젤월드의 색다른 모미, 패션 코드 워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a Passion for Time

바젤월드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난 그의 타이틀은 수없이 많고 실로 대단했다. 그만큼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은 굉장히 간절되고 특별한 일이다. 에르메스 기운의 6대손이자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부사장이고, 패션 브랜드 존공의 회장을 역임하며 에르메스 시계 총괄 회장으로서 시계 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욤 드 세느(Guillaume de Seyne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Guillaume de Sey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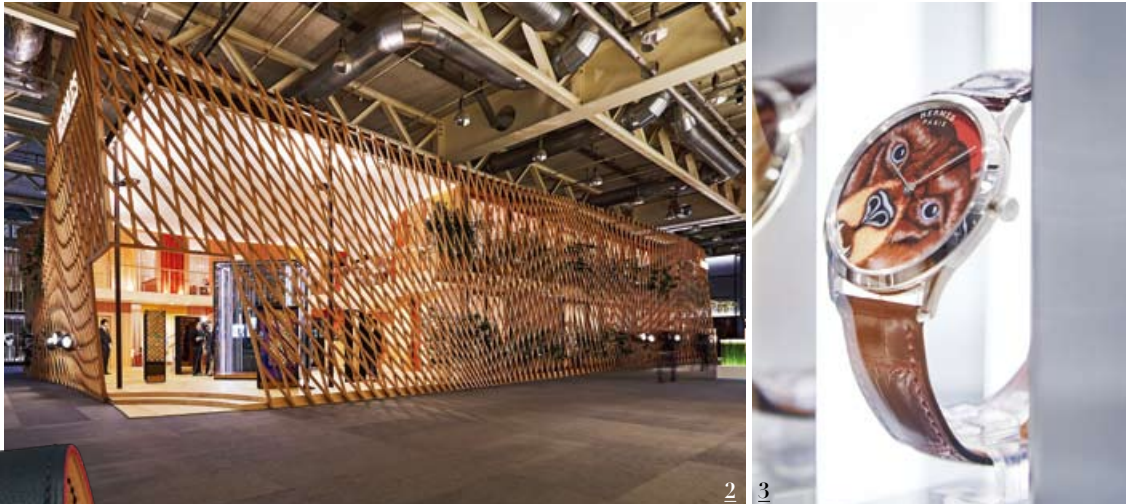


**Q1 바젤월드를 찾은 사람들이 에르메스 워치 피플리온에서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에르메스가 스위스에서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우리는 스위스 시계업계에서 당당히 시계 제조사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에르메스 고유의 가치를 시계에 담아내려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계 제조와 품질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에르메스의 창의성, 디자인에 담긴 현대적인 감각과 특성, 그리고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다양한 컬러 스트랩 등을 시계에 함께 담아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에르메스 시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바젤월드 같은 박람회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면에서 에르메스 파블리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르메스 파블리온을 구성하는 밝은 느낌의 조명과 내부가 들어다보이는 나무 구조의 외관은 다른 시계 브랜드들의 부스와 매우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Q2 해마다 바젤월드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신제품을 구상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에르메스 고유의 아름다운 특성을 담고있고 동시에 스위스 시계 제조사에서 기술적인 면에 대한 위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물론 모든 것은 에르메스의 가치를 시계에 담아내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선보인 케이프 코드 컬렉션을 살펴보면, 기존 스트랩의 예지 부분을 대체가 되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색다른 표현을 들 수 있어요. 이는 기존 시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이얼이면서 에르메스가 가진 가족, 인장의 역사와 노하우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시간을 일적으로 멈출 수 있게 한다는 콘셉트 무브먼트를 넣는 등 독특한 콘셉트를 기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에르메스 워치의 매력이다.** 15년 전, 저는 에르메스 시계가 남성 시계, 메가-컬 시계 분야에서 있어서 그 존재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르메스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노하우와 창의성, 그리고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입니다. 더불어 시계에서 가장 특별한 노하우는 무브먼트에 있죠. 노하우를 중시하는 브랜드의 가치에 맞춰 1990년대 말부터는 무브먼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를 통해 기존 시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 서스펜디드의 경우 에르메스의 창의성을 더해 기술적으로 무브먼트의 기능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법이었죠. 에르메스만의 독특한 철학,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시계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시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소개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앞서 소개한 타임 서스펜디드, 레호 미스케, 그리고 올해 선보인 레호 임피어먼트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재미있는, 즐길 수 있는 시계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Q4 에르메스 워치의 메테이데르 컬렉션을 상징하는 정인 장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이프티스가 갖는 의미는 에르메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매우 부합합니다. 에르메스는 특별한 노하우와 정인 장신을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정인 장신이란 것은 제품이 에르메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바탕이 되었고, 에르메스의 고객은 이런 가치를 충분히 알고 즐기는 사람들이죠. 메테이데르 제품 중에서도 에르메스만의 독특한 정인 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에는 더욱 특별합니다. 생 루이에서 만든 크로틸 다이얼을 더한 이프티데르와 같은 제품처럼 말입니다. 이걸이 다이얼로 표현하는 메테이데르 제품을 통해 에르메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티브를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선보인 제품 중 매우 특별한 공이 그려진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이 공은 원래 에르메스의 남성용 스카프에 있던 동일한 모티브를 시계 다이얼로 옮긴 것이지요. 이렇듯 각각의 다이얼은 에르메스의 다양한 다른 메테이데르, 즉 타리엔지 스카프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표현하고, 이는 에르메스 컬렉션의 일부로서 신뢰감을 줍니다.



1 에르메스 기운의 6대손이자 에르메스 시계 총괄 회장인 기욤 드 세느. 2 바젤월드 1, 1홀에 자리한, 독특한 나무 구조로 이루어진 에르메스 파블리온. 3 에르메스 남성 스킨 패블리온 공 모티브를 에-레-미-아처 페인팅으로 완성한 '슬림 데르메스 그로르'. 이로부터 에르메스만의 워치가 느껴진다. 4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시계,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카운팅에 들어가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가디언의 마음'을 담은 '슬림 데르메스 레호 임피어먼트'. 5 스트랩 예지 라인을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케이프 코드 색'. 6 뛰어난 기술력의 장짜, '슬림 데르메스 파페주얼 캔디 플라워'.



에서 제작할 수 있었고, 보세의 자분 25%를 가지고 있어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제조도 가능해졌습니다. 시계를 포함한 에르메스의 모든 제품은 디테일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작은 디테일에서 품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가장 역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가치 높은 제품이듯 시계 역시 에르메스의 가치와 그 바탕이 동질하다고 할 수 있어요.

**Q6 인하우스 무브먼트 제조를 위해 보세의 자분 25%를 인수했는데, 자분 인수 후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인수 직원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먼저 남성 시계 분야에서의 사업 확장과 함께 시계 제조에 최고의 노하우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보세라는 회사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고의 시계 기술을 내재화하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보세의 자분 인수는 에르메스에 고급 시계 기술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한 예로 슬림 데르메스의 경우 모던하면서 깔끔한 시계를 만들고자 계획하던 당시, 마침 보세에서 울트라-스 무브먼트를 개발 중이었기에 결국 우리는 이 얇은 무브먼트가 들어간 슬림 데르메스를 선보일 수 있었죠. 이 시계를 통해 에르메스 시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기에 그 결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Q7 현재 출시된 에르메스 시계 중 브랜드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든 제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스위스에 라 몽트르 에르메스를 설립한 후 처음으로 선보인 이프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프티는 1978년에 처음 선보인 시계로, 에르메스 시계업계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계는 매우 전통적인 라운드 케이스를 적용했지만 기존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열릴 때마다 매우 전통적인 시계인 듯하지만, 비주얼을 이루는 레그의 모양과 쓰러져듯 기울어 쓴 인텍스 숫자는 출시 당시에는 시계업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부분이었고, 덕분에 이 시계는 하나의 레퍼런스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Q8 2017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신제품 워치 중, 꼭 기억해야 할 제품은 무엇인가?** 이번 바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은 케이프 코드입니다. 올해로 출시 26주년을 맞은 이 케이프 코드 라인은 앞서 설명한 이프티와 마찬가지로 매우 클래식한 동시에 전혀 클래식하지 않은 양면성을 갖춘 독특한 시계죠. 올해 우리는 이 케이프 코드 라인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새로운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을 더한 제품부터 스트랩 예지 부분을 대비하는 색으로 마감해 포인트를 준 버전, 그리고 DLC 코팅의 케이스가 돋보이는 워치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에르메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간, 그리고 시계에 대한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시계 제조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계를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노하우와 즐거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시계를 선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디터 권유진(바젤 현지 취재)







# Grand Prestige Time

바젤월드에서 브레게는 시계 마니아들을 가슴 뛰게 하는 브랜드다. 브레게의 CEO인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는 올해 브레게의 고유한 유산에 다시금 집중해 여행과 발견을 키워드로 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였다.



### 태양시의 보다 정확한 해석

항해와 천문 등 고전적인 시간 기록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창립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Abraham-Louis Breguet). 사실 위치메이킹의 역사에 아로새겨진 이름 없이는 시계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올해 브레게가 바젤에서 선보인 가장 중요한 마린 컴플리케이션 컬렉션 역시 창립자의 스토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에게 끊임없이 찬사를 보낸 루이 18세는 그를 파리 경도국(Bureau des Longitudes) 위원회로 선정했다. 물리학과 선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치메이킹을 대표하게 된 브레게는 시계 부문에서 최고 권위자 자리에 올랐다. 특히 바다에서의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노하우를 선보였는데, 이러한 탁월함을 인정받은 루이 18세는 1815년 10월 27일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를 프랑스 왕정 해군을 위한 크로노미터 메이커로 공식 임명했다. 이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French Academy of Science)의 일원으로 활약한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활동 기간 동안 천체 시계나 마린 크로노미터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했다. 이러한 브랜드 창립자에게 영감을 받아 브레게는 올해 압도적인 완성도를 갖춘 새로운 위치를 선보였는데, 바로 마린 에퀴사시옹 마상 5887(Marine Equation Marchante 5887)이다. 진정한 수공예 시계인 오토 홀로그ери(Haute Horlogerie)를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계 애호가들은 이 시계 하나만으로도 깊고 긴 탐구가 가능하다. 균사치(equation of time)를 주제로 한 이 위치는 쉽게 볼 수 없는, 희소하면서 매력적인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담고 있기에 올해 바젤월

드에서 개최된 브레게의 전시 테마로 다뤄지기도 했다. 일반적인 시와 분을 의미하는 평균 태양시와 실제 태양의 시와 분을 의미하는 진태양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계의 핵심 요소인데, 평균 태양시와 비교했을 때 -14분에서 +16분까지 차이를 보인다. 보통 균사치를 표기할 때 서브 다이얼로 표기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진태양시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 태양시에서 시간을 더하거나 빼야 하는데, 브레게는 평균 태양시와 진태양시를 2개의 독립적인 분침으로 동시에 표기한다. 이는 매우 획기적이며 까다로운 기계적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평균 태양시와 진태양시 2개를 독립적인 분침을 통해 동시에 표시하는 것은 단순하고 확실하지만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이처럼 명백하고 단순해 보이는 디스플레이 뒤에는 소수의 워치메이커만이 고안할 수 있는 고난도 설계 과정이 숨겨져 있기에 수집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각 진 골드 태양으로 장식한 태양 바늘(solar hand) 덕분에 태양시의 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클래식한 점이다. 프레젠테이션 룬에 등장하자마자 프레스들의 갑탄을 자아낸 셀프와인딩 581DR 칼리버를 장착한 이 모델은 균사치 표기에 퍼페추얼 캘린더, 브레게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담은 티타늄 캐리지를 탑재한 60초 투르비용까지 더해 2017년 브레게의 상징적인 제품으로 등장했고, 최상의 위치메이킹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브레게의 가치를 고스란히 전한다. 새로운 기술을 담은 신제품이 많지 않았던 2017 바젤월에서 전문가들에게 활력소가 된 것은 물론이다.

### 여성 시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브레게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역사적인 여성 위치가 된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을 미니 버전으로 선보인 것은 클래식을 따르는 브레게의 기준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새로운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8965(Reine de Naples Princesse 8965)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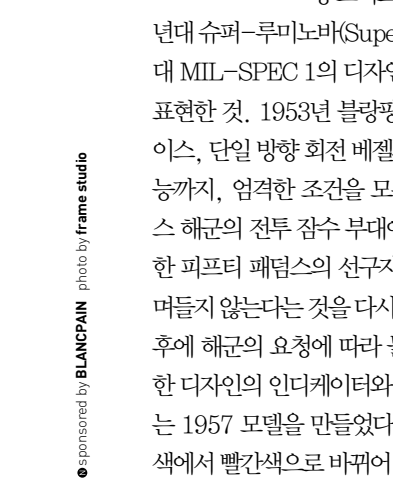
가 1810년 나폴리의 여왕 카롤린 뮈라(Caroline Murat)를 위해 만든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성과 대담함을 동시에 구현해냈다. 이렇게 매력적인 특징들은 형태와 소재가 기술적으로 어우러진 현재의 브레게 시계 라인으로 재탄생했다. 특유의 머더오브필 다이얼과 6시 방향의 랩터 링, 독특한 오벌형의 바늘 등 주요 디자인 특징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여성 시계에도 완성도 높은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브랜드 전통에 따라 새로운 레인 드 네이플 미니 역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586/1을 적용한 것은 매우 독보적인 요소다. 브레게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트래디션 컬렉션의 여성 버전인 로즈 골드 버전의 트래디션 달미 역시 획기적이다. 주로 남성을 타겟으로 하던 기계식 시계의 이름 다음을 강조한 모델을 여성 컬렉션으로 선보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기계식 시계의 이름다음으로 정면 승부한 모델이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정면, 그리고 시계 중심부에서 선풍하게 보이는 배럴에는 로제트 모터브로 핸드 인그레이빙 장식을 했고, 12시 방향에 자리한 천연 화이트 머더오브필 소재의 우아한 오프셋 다이얼에는 손으로 세공한 정교한 패턴으로 섬세하게 장식했다. 이렇듯 브레게가 2017년 바젤월에서 공개한 고귀한 시계를 통해 다시 한번 창의성, 혁신, 완벽한 미학이라는 키워드를 엿볼 수 있었다. 문의 02-3438-6218 에디터 배미진

1 바젤월에서 시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은 브레게 부스. 2 부스 내부 모습. 3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트래디션 달미 7038. 4 링크 레터 스트랩과 블랙 세틴 스트랩, 화이트 혹은 로즈 골드 세틴 브레게 스텐을 만날 수 있는 레인 드 네이플 미니 8928. 5 균사치의 흐름을 표시하고 퍼페추얼 캘린더의 기능을 갖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마린 에퀴사시옹 마상 5887. 6 2광 워치 에-레벨을 위한 다이얼로 에슬라미 톤보이는 클래식 7147.



# Refined Aesthetics

아마도 2017년 바젤월에서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중심을 잡고 자신만의 길을 가장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브랜드를 꼽으라면 블랑팡일 것이다. 마니아층을 사로잡은 피프티 패덤즈부터 여성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클래식한 빌레레 컬렉션, 시계 전통을 이어가는 메테에다르 컬렉션까지, 진정한 워치 브랜드의 정수를 보여준 블랑팡의 2017 뉴 컬렉션을 소개한다.



### 완벽한 방수, 절대 기능에 대한 찬사

클래식 모델을 재현하거나 한정판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소비자까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Fifty Fathoms). 이제 모던 다이버 워치의 원형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었다. 최초의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올해 새롭게 선보인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MIL-SPEC(Tribute to Fifty Fathoms MIL-SPEC)'에서 주목할 것은 워터프루프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6시 방향의 화이트와 오렌지 컬러 원형 모티프다. 블랙 컬러 다이얼 안에 1950년대 슈퍼-루미노바(Super-luminova) 인덱스와 1950년대 MIL-SPEC 1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수밀성 디스크를 표현한 것. 1953년 블랑팡은 두 번 밀봉된 크라운과 백 케이스, 단일 방향 회전 베젤과 높은 가동성을 포함해 방수 기능까지, 엄격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다이버 시계를 프랑스 해군의 전투 잠수 부대에 전달했다. 이 모델은 아이코닉한 피프티 패덤즈의 선구자가 되었다. 시계에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블랑팡은 이후에 해군의 요청에 따라 물이 새는 것이 표기되는 이 독특한 디자인의 인디케이터와 함께 MIL-SPEC 1이라고 불리는 1957 모델을 만들었다. 물이 샌다면 디스크의 색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케이스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다이버에게 알려준다. 1960년대 블랑팡은 이 시계들을 미국 해군 특수부대에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컬렉션을 올해 한정판으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6시 방향에 위치한 이 수밀성 디스크는 과거에 혹시라도 손목시계에 물이 들어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는 블랑팡의 완벽한 방수 기능 덕분에 오직 오리지널 모델을 기념하기 위한 장식적인 요소로 남았다. 해당 모델에는 블랑팡의 인하우스 오토메틱와인딩 칼리버 1151을 장착하고 5백 피스 한정 생산한다.

### 문페이스를 더한 빌레레 여성 컬렉션의 품격

고전적인 완벽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제대로 갖춘 여성 시계를 만나고 싶다면 블랑팡이 답이다. 올해 바젤월에서도 블랑팡은 아름다운 무브먼트 셀프와인딩 칼리버 913QL을 탑재한 여성 시계 컬렉션을 선보였다. 바로 빌레레 컬렉션의 가장 여성스러운 특징이 담긴 '데이트 문페이스(Date Moon Phase)' 워치다. 레드 골드 케이스 안에 날짜 인디케이터와 사파이어 소재의 문페이스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 문페이스 기능은 1980년대 초반 블랑팡에 의해 재조명받기 전까지 거의 사라졌던 컴플리케이션 기능 중 하나인데, 여성 시계에서 아름다운 운동감을 표현하는 이 요소가 컴플리케이션 위치의 상징적 요소인 만큼 품격 있는 위치를 완성한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고전적인 시계 브랜드에서 만나보는 정확한 문페이스 기능은 위치메이킹과 천문학의 역사적 유대를 환기시키는 아름다운 순간인 것.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달에는 여성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여성의 입가에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18

세기 유럽 궁정의 귀족 여인들이 구혼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로 널리 사용된 것이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점이 얼굴 중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유머러스한 요소를 담고 있다. 물론 여성 시계뿐 아니라 블랑팡의 시그니처 컬렉션인 빌레레 컬렉션의 클래식한 남성 버전은 여전히 새로운 기능을 더해 출시되고 있다. 올해 선보인 제품 중 시계 전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주(week), 요일, 그리고 라지 데이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인 빌레레 8데이 워크 인디케이션이다. 새로운 블랑팡의 타임피스에는 무려 3백7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인하우스 오토메틱 칼리버 3738G2를 장착했다. 기변 관성(variable-inertia)으로 오차 조절이 가능한 밸런스 휠은 골드 레플레이션 스크루와 실리콘 스파이럴을 사용한 티타늄 소재로 만들었다. 최근 시계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소개되는 실리콘 스파이럴은 밀도가 낮아 가벼우며, 자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 더욱 이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밸런스 스프링으로 인해 시간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진다. 물론 블랑팡은 이러한 무브먼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의 02-6905-3367 에디터 배미진



1,2 역동성이 돋보이는 블랑팡 부스. 3 시계 장인이 부스에서 무브먼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4 다이버 워치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 5 브랜드를 상징하는 빌레레 컬렉션에 주(week)와 요일, 그리고 라지 데이트 기능을 갖춘 빌레레 워치 워크 인디케이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6,7 여성을 위한 빌레레 데이트 문페이스 컬렉션은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 세트 구성으로도 선보인다.





© sponsored by OMEGA photo by frame studio



1 (왼쪽부터) '스피드마스터 38mm',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빅 블루',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레이디 컬렉션', 2 34mm의 타하티 마더오브밀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돋보이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레이디 컬렉션', 3, 5 오메가 마스터 300과 레일마스터, '스피드마스터의 60주년 기념 에디션'을 모두 구입하는 이들이게 제공하는 특별한 트리플로지 박스, 6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공 무브먼트는 정확성, 성능, 자침 저항 등에 있어 METAS 스위스 연방계측학회가 만든 스위스 시계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다, 7 오메가 하스토티 워치를 진화한 소위도, 8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컬렉션'의 설계 도면, 9 일체적인 돔 글라스(domed glass)를 채용한 '스피드마스터 38mm' 컬렉션, 10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컬렉션', 11 칼리버 9800을 장착한 '스피드마스터 레이시 마스터 크로노미터', 12 오메가 1957 트리플로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레일마스터.

# Sixty Years of Precision

올해 개최 1백 주년을 맞는 바젤월드에서 오메가의 위상은 여전하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중심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시계 기업인 스와치 그룹의 핵심 브랜드이기에 오메가의 지위는 높고 공고하다.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크로노그래프 워치인 스피드마스터 탄생 60주년을 맞아 더 확실하게 입지를 다졌다.

## 60년간 이어진 정확성의 척도, 스피드마스터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 스피드마스터. 시계 브랜드의 창의성과 인간을 우주로 이끈 기술력을 상징하는 이 위대한 시계가 올해 탄생 60년을 맞이했다. 사실 처음엔 프로페셔널 드라이버에게 인기를 끈 레이싱 카를 위한 시계였지만, 우주 탐험에 적합한 시계로 채택된 데다 1965년 이후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우주인의 손목에 착용했기에 이제는 '달 착륙 시계'로 대변되는 월계관을 쓰게 되었다. 스피드마스터가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직 기술력 때문이다. 나사(NASA)는 1964년부터 유인 우주 미션에 사용할 크로노그래프 위치를 찾고, 몇몇 브랜드의 시계를 선별해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오직 하나의 시계만이 테스트 과정에서 가해진 극한의 온도, 진동, 강한 충격, 그리고 가혹한 진공 상태에서 살아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였던 것. 이러한 스토리가

더해져 스피드마스터는 출시 이래로 오메가의 인기 있는 시계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더해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스피드마스터 고유의 스타일과 유산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컬러와 디자인 터치에 새로운 매력을 담았다.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스타일,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컬러까지, 오랜 전통을 지닌 시계의 가치가 느껴지는 모델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전설적인 컬렉션에 추가된 가장 중요한 제품은 38mm 스피드마스터 모델에 더해진 14가지 제품이다. 최전선에서 이 라인업을 이끌며 부드럽고 인상적인 카푸치노(Cappuccino)라는 별명을 얻은 첫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에 18K 세드나 골드를 더한 제품이다. 토프 브라운 컬러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이 모델은 오메가 드 빌 컬렉션 일부에 사용한 바 있는 오벌 형태 서브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형태의 오벌 형태 다이얼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컬러와 배리에이션이 다양한 제품을 추가했는데, 모든 모델의 백 케이스에는 스피드마스터의 상징인 해마 메달리온을 새겼다. 코-액시얼 기술력과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한 오메가 칼리버 3330을 장착해 4년의 풀질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래도록 스피드마스터에 대한 애정을 전해 온 전 세계 시계 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웹사이트인 www.hodinkee.com의 창립자 벤저민 클라이머는 오메가 스피



드마스터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카운터가 3개인 블랙 다이얼이 주는 순수한 이미지는 단연 최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또 빈티지 카 애호가로서 스피드마스터의 탄생 배경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유 시간을 빈티지 카에서 보내는 저는 이 시계가 애초에 레이싱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게 느껴져요. 어떤 친구는 우주에서 타기미터는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봐도 타기미터조차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레이싱을 위해 제작되었다가 우주로 타깃을 바꾸었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디테일이기도 하니까요."

## 1957년, 오메가의 역사를 만든 세 가지 타임피스 탄생

올해 신제품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메가 1957 트리플로지 리미티드 에디션(The OMEGA 1957 Trilogy Limited Editions)'이다. 이 해에 오메가는 세 가지 프로페셔널 타임피스를 선보였고, 이후 지금까지 클래식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바로 씨마스터 300(The Seamaster 300), 레일마스터(Railmaster)와 스피드마스터(Speedmaster)로, 올해 오메가는 각 모델의 특별한 60주년 기념 에디션을 담은 트리플로지 프레젠테이션 박스를 오직 5백57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이 컬렉션을 복각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스캔 기술을 채용했는데, 이러한 신기술 덕분에 오리지널 시계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7년의 승고한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 '씨마스터 300-6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레일마스터 6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38mm', '스피드마스터 6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38.6mm'로 재탄생했다. 외형은 클래식하지만, 1만5천 가우스 이상의 자성을 견딜 수 있는 칼리버 혹은 4년 간의 풀질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를 장착했다는 것이 더욱 드라마틱한 점이다. 바젤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이 컬렉션을 본 프레스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매력을 동시에 갖춘 데다, 세 가지가 하나의 케이스에 담겨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클래스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빈티지한 오메가 로고와 1957년 패키지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박스, 이와 함께 구성된 가죽과 2개의 나트 스트랩은 모두 교체 가능한 키트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다.

## 완성도를 높인 클래식의 새로운 변주,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컬렉션

세련된 스타일에 브랜드 고유의 완성도와 정신을 불어넣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컬렉션'을 새로운 마스터 크로노미터로 선보인 올해는 미묘한 변형만으로도 신선한 매력이 가득한 시계를 선보이는 오메가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다. 아쿠아 테라의 티크 콘셉트는 이 컬렉션의 가장 상징적인 부

분인데, 올해는 티크 패턴이 기존의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펼쳐져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준다. 날짜창을 3시에서 6시 방향으로 이동해 대칭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도 인상적이다. 이는 1952년, 날짜창을 표기한 첫 번째 시계로 선보인 오토매틱 씨마스터 컬린더 디자인에 경의를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케이스 백의 물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콘 형태의 크라운 역시 디자인에 새로움을 부여한 요소 중 하나다. 41mm의 볼드한 사이즈와 38mm 사이즈 모델까지 선보이는데, 손목 두께와 사용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이번 컬렉션은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 혹은 8800을 탑재해 수준 높은 정확성을 기대해도 좋다.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여성 컬렉션만으로도 30여 개의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새로운 모델은 38mm, 34mm, 28mm, 세 가지 사이즈로 선보여 원하는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허받은 스크루-앤드-핀(screw-and-pin) 브레이슬릿은 여성스러운 감성을 가미해 비율을 변경한 돔 형태 링크를 더했고, 크라운 역시 물결무늬를 넣은 콘 형태로 변경해 조작성이 편리해졌다. 머티오브밀 다이얼과 오팔, 샌드 등 14가지의 세련된 다이얼 컬러로 만날 수 있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덱스도 선택할 수 있다. 여성 위치에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을 더해 4년간의 풀질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 The Innovation of Attraction

우리는 샤넬 워치에 대해 언급할 때 일단 아름다움과 매력,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샤넬은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에 뛰어난 이후 아름다운 오브제이저 뛰어난 기술을 적용한 정확한 가능성을 담은 제품으로 크게 도약했다. 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비전을 선보이는 샤넬 워치의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는 바젤월드 부스를 찾았다.



## 1987년 프리미에르, 샤넬 워치의 첫 번째 발걸음

1987년에 탄생한 프리미에르 (Premiere) 워치는 샤넬이 처음으로 선보인 시계다. 프리미에르에는 '처음'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시간과 공간, 순위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앞서는 중요하고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실현된 것, 최초로 분류되는 것, 또는 오토 쿼터에서 아틀리에의 디렉터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첫 번째 워치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프랑수아즈인 우아한 사고방식을 지닌 샤넬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진다. 남성을 위한 시계가 대다수이던 시절에 오직 여성을 위해 만든 최초의 시계로 샤넬 N°5 향수 병 마개와 방돔 광장의 모양을 본떠 디자인했기에 지금 봐도 새롭다. 그 이전에 남성 시계를 조금 변화시켜 여성 시계로 만들어온 관습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워치를 선보인 것. 당시 이네스 드 라 프레상주(Ignes de la Fressange)를 모델로 기용한 프리미에르 워치는 완벽한 여성 시계이자 패션 액세서리 역할까지 하는, 오직 여자를 위한 시계로 자리 잡았다. 프리미에르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어떤 경계도, 다이얼도, 마커도 없는 납작하고 매끄러운 케이스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진주를 여성성을 상징하는 보석 중의 보석으로 표현한 샤넬은 시계 고유의 기능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여성미, 새로운 여성 시계의 비전을 보여준다. 샤넬 하우스의 상징적인 모티브인 카멜리아와 코메트, 킬링, 리본까지 다양한 모티브로 손목을 감싼다. 스케치부터 구상, 개발, 제작까지 모두 인하우스 방식으로 진행한 샤넬이라는 클래식한 이름 아래 변주되는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렬하다. 2012년에는 프리미에르 시계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프리미에르 플라잉 투르비옹'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데, 카멜리아 혹은 코메트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은 투르비옹 디자인은 독창성을 겸비한 기술력을 추구하는 샤넬만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샤넬은 이 워치로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여성 시계' 분야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카멜리아 꽃잎 모티브를 3D 입체로 형상화한 무브먼트를 장착한 '프리미에르 카멜리아 스텔레온' 모델과 케이스에 루비를 세팅한 카멜리아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투르비옹을 장착한 '프리미에르 플라잉 투르비옹 루비'는 디자인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한다. 선명한 레드 컬러가 인상적인 '프리미에르 락 레드' 워치는 오직 1천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 2000년, 센세이션얼한 J12의 시작

블랙 세라믹으로 첫선을 보인 J12 워치는 샤넬이 시계 분야에 가장 인상적인 행보를 남긴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시계업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샤넬 하우스의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 세라믹 소재를 시계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한 것이다. 이 시계를 방돔 광장에서 처음으로 출시했을 때 시계업계의 놀라운 이슈가 되었다. 메탈에 견주어도 아쉬움이 없는 메시 스트랩, 사람의 체온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세라믹의 매력은 샤넬이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혁신하게 풀어낸 것이 꽤나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최첨단 세라믹 소재를 최고급 소재로 변형하고, 짙은 블랙 컬러를 워치메이킹 분야의 트렌드로 만들었다. 패션을 넘어 시계 분야에서도 블랙 컬러를 클래식한 컬러로 정의한 것이다. 2003년에는 J12를 무결점의 화이트 컬러로 새롭게 변화시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005년에는 투르비옹을 장착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5년 후 'J12 레트로그레이드 미스터리어스 (J12 Retrograde Mysterious)'를 선보이며 컴플리케이션 워치 분야에도 뛰어 들었다. J12는 10여 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 워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이 컬렉션은 다양한 변형 제품과 팝업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극도의 여성미를 즐길 수 있는 XS 버전까지 출시했다. 여기에 스트리트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1천 2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인 'J12 그라피티'는 캐주얼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샤넬 마니아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마드모아젤 J12는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손가락으로 시와 분을 표기하는 샤넬 여사의 유틸리티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 2015년 샤넬 보이프렌드의 대성공

2015년 완전히 새롭게 선보인 '보이프렌드(BOY, FRIEND)' 워치는 중성적인 코드를 더한 여성 시계로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 시계업계가



6

1 카멜리아 꽃잎을 3D 입체로 형상화한, 스텔레온 무브먼트가 특징인 '프리미에르 카멜리아 스텔레온'. 2 최초의 'J12' 화이트 세라믹 버전. 3, 4 샤넬 워치의 30년 역사를 보여주는 쇼윈도. 5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에 핑크 세라믹 베젤이 포인트인 'J12 콜렉트' 타임피스. 6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잘 드러낸 심플한 외관의 바젤월드 샤넬 부스. 7, 13 샤넬에서 남성을 위한 워치로 선보이는 '무슈 드 샤넬'. 샤넬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8 1989년 선보인 '프리미에르' 워치 광고 이미지. 9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던 주얼리 조각 기법 중 하나인 클리프틱 기법을 통해 코로망델 병풍 모티브를 완성한 마드모아젤 프리베 컬렉션. 10 올해 새로운 컬러로 선보인, '프리미에르 락 레드'. 1천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됐다. 11 '보이프렌드' 워치 투르뒤 베이지 골드 버전. 12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J12 XS' 블랙 세라믹 버전과 'J12 XS' 화이트 세라믹 워치.

8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거둔 성공이기에 더욱 뜻깊다. 외관은 남성적이지만 착용했을 때 오직 여성에게 어울리는 이중적 매력을 지닌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컬렉션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타격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론칭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 지난해에는 브랜드 고유의 트윈드 모티브에서 착안한, 트윈드 패턴을 형상화한 메탈 스트랩을 선보이기도 했다. 강철사로 짜고 트윈드 패턴을 조각으로 새겨 넣은 스트랩은 완성하는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소재가 지닌 풍부한 질감을 살리는 것은 패션에서 이어져온 샤넬만의 전매특허이기도 가능한 결과였다. 올해도 보이프렌드 트윈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데, 블랙과 베이지 골드, 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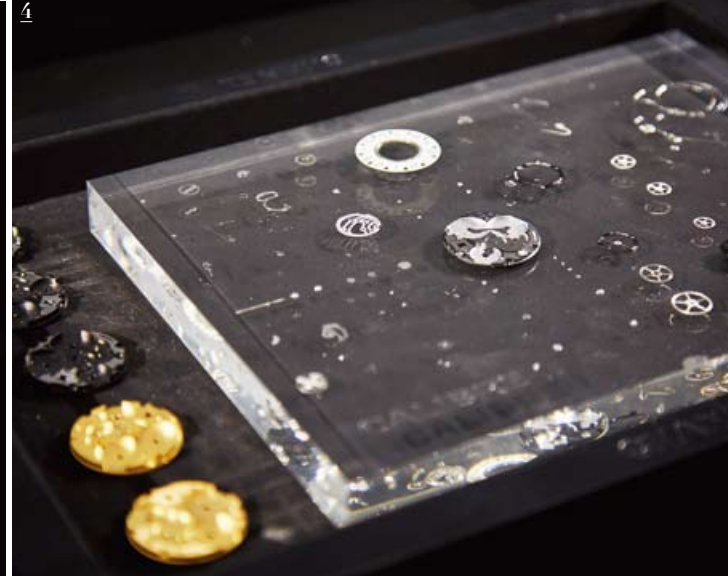
## 2016년 최초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그리고 샤넬만이 선보일 수 있는 마드모아젤 프리베 컬렉션

지난해에는 최초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하며 고급 시계 브랜드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는데, 점핑 아워(jumping hour)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retrograde minute) 기능을 적용한 '칼리브 1(CALIBRE 1)'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샤넬 최초로 오직 남성이 착용할 수 있는 워치인 '무슈 드 샤넬(Monsieur de CHANEL)'을 선보인 것



11

도 기억할 만한 기록이다. 올해는 그랑 피 에나멜 기법을 차용한 신제품 '무슈 플라티넘 블랙'을 1백 개 한정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인하우스 무브먼트만큼이나 많은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마드모아젤 프리베(Mademoiselle Prive)' 컬렉션이다. 금사 자수 장식와 자개 마케트리 등 장인의 숨결을 더한 컬렉션을 기본으로 불가능한 예술적 기법을 다이얼에 고스란히 담았다. 뛰어난 에나멜러와 조판사, 조각가, 보석 세팅 전문가들이 샤넬 워치의 예술적 가치를 한층 높였다. 샤넬 하우스가 보유한 장인들의 뛰어난 기교도 이 컬렉션에 녹여냈다. 마드모아젤 프리베 카멜리아(Mademoiselle Prive Camellia) 시계는 니들 페인팅(needle painting) 기법을 사용해 유색 실리카 자수 장식을 가미한 독창적인 기법으로 2013년 제네바 워치메이킹 그랑프리 예술 공예(Artistic Crafts) 부문에서 샤넬에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제조 공방부터 이어져온 새로운 특허 출원, 원하는 디자인에 완벽한 기술을 더해 독창적인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샤넬이 시계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는 가브리엘 샤넬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오바진 고아원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영감을 받은 마드모아젤 프리베 오바진과 샤넬 아파트의 코로망델 병풍에서 영감을 받아 클리프틱 기법을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3442-0962  
에티어 배미전





# Portraits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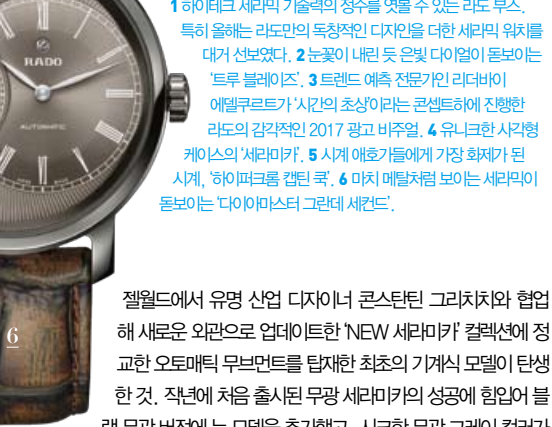
라도' 하면 떠오르는 건 독보적인 세라믹 소재 관련 과학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라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라도는 직년에 이어 올해에도 트렌드 예측 전문가와 함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비주얼 화보를 선보이고, 더 나아가 유명 산업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세라믹 소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리시한 워치를 대거 탄생시켜 세계 컬렉터들을 열광케 했다.



**디자인, 견고함, 편안함 모두 갖춘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는 취향의 산물이다. 요즘처럼 스마트 워치와 웨어러블 기기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특히 더 그렇다. 라도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최첨단 기술, 신소재 개발과 함께 감각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라도 시계를 착용한다는 것은 자신을 차별되게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좋은 취향이 묻어나는 디자인에 탐닉하는 사람임을 연중중에서 드러내는 심벌이 되었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라도는 시계를 통해 스타일을 창조하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공표했다. 세계적인 트렌드 예측 전문가 리더하이 에셀쿠르트와 작업한 '시간의 초상' 화보와 함께 최신 컬렉션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라도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의 사적인 취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이다.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시계 애호가에게 가장 화제가 된 제품은 1960년대 라도 시계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하이퍼콜롬 캡틴 쿡 컬렉션이다. 2017 바젤월드 메가 트렌드로 떠오른 복고풍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18세기 영국 탐험가 캡틴 제임스 쿡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오퍼시리즈 인텍스, 두툽한 화살 모양 핸즈가 특징이다. '상상할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는 브랜드의 개척 정신을 담아낸 이 컬렉션은 1962년 탄생한 오라지널 모델을 충실하게 재현한 37mm 사이즈 남녀 시계와 45mm 특대형 사이즈 모델을 출시한다.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 베젤에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결합한 여성 시계는 다이얼에 8개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가미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탄생 연도와 동일한 1천9백62개 한정판으로 제작된 남성 시계는 블랙 하이테크 세라믹 베젤에 브라운 비티지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레트로 무드를 한층 강조한다. 2017년, 라도를 대표하는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의 '하이퍼콜롬' 컬렉션은 하이퍼콜롬 캡틴 쿡 외에도 46mm 사이즈의 비티지 남성 워치 '하이퍼콜롬 1616'을 새롭게 추가해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비티지 브라운 가죽 스트랩에 선명한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하이퍼콜롬 1616' 한정판 모델은 트렌디한 레트로 무드를 반영했다. 단단한 티타늄 케이스, 100m 방수 기능,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슈퍼-루미노바 차지된 로동 핸즈 등 한층 견고해진 디테일은 여행과 모험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특히 어필하는 요소다. 라도의 뛰어난 소재 기술과 세라

믹 분야의 디자인 감각은 점을 더욱 확고히 드러내는 워치 컬렉션이 하나 더 있다. 모던한 원형 다이얼이 돋보이는 '트루' 컬렉션이 바로 그 주인공. 이번엔 독특하게도 미국 디자이너 샘 오모이어, 오스트리아 디자이너 라이너 마저, 빅 게임 디자인 스튜디오 등 국제적인 디자이너들과 공동 개발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해 화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유명 엔지니어 디자이너인 샘 오모이어와 칼라베레이션해 선보인 '트루 블레이즈'는 트루 고유의 모던한 디자인에 자연과 소재에 포커스를 맞춘 샘 오모이어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가미했는데, 다이얼 위에 마치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섬세하게 내려앉은 듯 화려하게 반짝이면서 독특한 질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연 도금 프로세스로 완성했다. 더불어 오스트리아 디자이너 라이너 마저와 함께 개발한 '트루 스트라톤'은 유니크한 비대칭 베젤과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다이얼에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세라믹 기술의 정수를 드러내며, 다시 한번 라도만의 저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소재 과학의 정수를 담다. 다이아마스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소재 과학의 안벽에서 어떤 시계도 라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 라도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세라믹 핸들링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스크래치에 강하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해 내구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피부에 이질감을 주지 않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것이 라도만이 가진 독보적인 소재 기술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 제품은 인목 높은 시계 애호가의 대일미 워치로 인기 높은 라도 다이아마스터 그랜드 세컨드 워치다. 언뜻 메탈 시계처럼 보이지만, 놀랄게도 이는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된 시계다. 이 시계가 메탈처럼 매끈하고 반짝이는 빛을 머금고 있는 건, 화이트 세라믹이 20,000°C의 플라즈마가 마에서 가열될 때 활성화된 가스가 세라믹 소재의 표면에 빛을 산란하기 때문. 이런 라도의 뛰어난 세라믹 기술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 탄생시킨 다이아마스터 그랜드 세컨드 워치는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매우 가볍고 착용감이 편안하며, 스틸보다 최대 5배 더 단단해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 초콜릿 표상한 사브 다이얼과 시, 분을 나타내는 메인 다이얼이 서로 겹친 비대칭 다이얼도 유명한 이 시계는 올해 로모사자 인텍스와 세련된 스페이 패턴을 가미했다. 보다 활동적인 삶을 선호하는 남성이라면 9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장착한 '다이아마스터 파워 리저브' 워치를 추천한다.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는 블랙 또는 블루 컬러 다이얼로 선보인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은 세라믹이 컬렉션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작년 바



젤월드에서 유명 산업 디자이너 콘스탄틴 그리치와 협업해 새로운 외관으로 업데이트한 'NEW 세라믹' 컬렉션에 정교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최초의 기계식 모델이 탄생한 것. 직년에 처음 출시된 무광 세라믹의 성공에 힘입어 블랙 무광 버전에도 뉴 모델을 추가했고, 시크한 무광 그레이 컬러가 새롭게 등장한 점 역시 매우 흥미롭다. 라도 제품 중 가장 얇은 세라믹 워치 '트루 센티널'은 신평탄 그라운드 블루를 메인 컬러로 올해 상영하고 매력적인 네 가지 컬러를 더해 총 일곱 가지 컬러로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49-9582 에디터 권유진

1 하이테크 세라믹 기술력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라도 부스. 특히 올해는 라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세라믹 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2 눈꽃이 내린 듯 은빛 다이얼이 돋보이는 '트루 블레이즈'. 3 트렌드 예측 전문가인 리더하이 에셀쿠르트가 '시간의 초상'이라는 콘셉트하에 진행한 라도의 감각적인 2017 광고 비주얼. 4 유니크한 사각형 케이스의 '세라믹'. 5 시계 애호가들에게 가장 화제가 된 시계, '하이퍼콜롬 캡틴 쿡'. 6 마치 메탈처럼 보이는 세라믹이 돋보이는 '다이아마스터 그랜드 세컨드'.

● sponsored by RADO photo by frame studio

# Legendary Heritage

론진은 올해 퀴츠 무브먼트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단순한 퀴츠 워치였다면 지나칠 수 있었지 모르나, 현존하는 퀴츠 시계 중 가장 정확한 퀴츠 시계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현을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을 론진 부스에 오래 머물게 했다. 바로 퀴츠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론진 콘퀘스트 V.H.P.'가 그 주인공이다.



**퀴츠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 콘퀘스트 V.H.P.**  
오토매틱 워치의 오차에 대한 한계를 깬 퀴츠 워치의 등장은 '퀴츠 파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만큼 오랜 전통을 지닌 스위스 기계식 워치 브랜드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물론 론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1832년 무브먼트 회사로 시작해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던 론진 역시 퀴츠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 후 스위치 그룹에 인수되면서 본격적으로 퀴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에 주력한 론진은 1980년대에 초정밀 기공이 가능한 퀴츠 칼라바를 장착한 '콘퀘스트 V.H.P.'를 통해 눈부신 성상을 이루어 퀴츠 무브먼트에 대한 경항과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퀴츠 무브먼트와 함께한 오랜 히스토리를 지닌 론진은 올해 창립 1백85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근본인 퀴츠 시계에 다시금 집중하고, 이런 역사적 이정표의 연장으로 에베레스트가 론진을 위해 독점적으로 개발한 아주 정확한 퀴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2017 콘퀘스트 V.H.P.'를 선보였다.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퀴츠 시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더욱더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이 시계의 핵심은 아날로그 시계의 높은 정밀도(±5초/년)와 함께 충격이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계의 오차를 정확히 계산해 핸즈를 재설정하는 GPD(gear position detection) 기어 위치 감출) 시스템에 있다. 시계가 충격이나 자성에 노출될 경우 얇은 퀴츠 시계의 핸즈는 작동을 멈추는데, 콘퀘스트 V.H.P.의 경우 일시적으로 멈추더라도 그 영향이 사라지면 GPD 시스템을 통해 멈춰 있던 시간만큼 핸즈를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자정이 가까워지 전 시간이 1시였고 충격이 가해져 5분 동안 시계의 핸즈가 멈췄다고 가정한다면, 충격이 사라진 후 콘퀘스트의 핸즈는 자동으로 이를 계산해 1시 5분으로 이동해 오차 없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놀랍고 매력적인 기능은 약 5년이라는 오랜 배터리 수명과 패시워드 캘린더가 필수적인 콘퀘스트 V.H.P.에 꼭 필요하오. 더불어 E.O.L 기능을 더해 배터리 수명이 디지탈 잔여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함까지 갖췄으니, 이보다 완벽한 퀴츠 시계가 또 있을까. 스틸 소재로 출시하고 다이얼은 블루, 카본, 실버, 블랙 등 네 가지 스타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심플한 기본 모델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한 모델 등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매력적인 가격대로 선보이는 론진 최초의 COSC 인증 워치, 레코드**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중 보다 접근하기 쉬운 라인업의 클래식 워치 표본을 꼽으려면 바로 론진이다. 특히 올해 론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브랜드 최초의 COSC 인증 워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론진만의 자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론진의 핵심은 앞서 설명한 가장 정확한 퀴츠 무브먼트를 선보인 것이지만, 무브먼트 회사로 시작한 오랜 역사를 되돌아볼 때 품질 높은 오토매틱 무브먼트 또한 론진의 우수성을 대변한다. 특히 창립 1백85주년을

1 올해는 론진의 상징인 대형 말 모형 대신 로맨틱한 화선도미를 디스플레이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2 '콘퀘스트 V.H.P.'는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퀴츠 시계다. 3 여성 워치로는 독특한 타원형 케이스에 로즈 골드와 스틸 골미 브레이슬릿을 장착해 새롭게 선보이는 '심비네트' 워치가 주목 시계다. 4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플래그십 컬렉션 론진 6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제작된 '플래그십 헤리티지 60주년 1957-2017. 에베레스트' 인줄루카이 선한 워치로,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매력적이다. 5 1957년에 출시한 론진 플래그십 오라지널 모델. 6 론진의 1백85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설의 워치로 10개 영감을 복각 워치를 디스플레이한 모습. 7 론진 최초의 COSC 인증을 획득한 '레코드' 컬렉션.



기념해 선보이는 레코드 컬렉션은 브랜드 최초로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인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탑재한 기념비적인 타임피스다. 오토매틱 워치의 정밀도와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의 무브먼트에 싱글 크리스탈 밸런스 나선을 추가해 온도 변화, 자기장과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볍고 산화되지 않는 강한 상장을 가진 워치를 탄생시킨 것.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준이 까다로운 COSC 인증을 획득했고, 다이얼 위에는 이를 증명하는 'CHRONOMETER' 라벨을 각인함과 동시에 COSC 크로노미터 인증서를 제공한다. 26mm, 30mm, 38.5mm와 40mm의 네 가지 사이즈의 레코드 컬렉션은 모든 모델이 스틸 케이스로, 7개 베리에이션으로 구성된 다이얼의 여성 제품과 6개 옵션을 갖춘 다이얼의 남성 제품으로 출시한다. 여성 제품의 경우 케이스와 인텍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름다운 스틸 워치 또한 만날 수 있으니, 남녀 모두 론진의 하이엔드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전설의 화려한 부활, 플래그십 헤리티지 60주년**  
이번 바젤월드에서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과거의 전설적인 워치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재해석한 복각 워치다. 론진의 경우 창립 1백85주년과 함께 다채로운 기존 컬렉션의 기념 해를 맞이하면서 브랜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전설의 워치들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대표작인 것이 첫 번째 플래그십 컬렉션 탄생 6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플래그십 헤리티지 60주년 1957-2017 워치'다. 스위스 본사에 보관되어 있는 플래그십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이 시계는 각각의 리미티드 넘버가 새겨져 있는 것은 물론, 오라지널 버전과 동일하게 뒷면에 플래그십 표시가 되어 있어 더욱 특별하고 소장 가치가 높다. 1957년에 출시한 이래 특유의 우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현재까지 큰 사랑을 받아온 플래그십 워치는 바람에 휘날리는 선함 모터브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출시 6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2017년 에디션은 우아함을 상징하는 배우이자 론진 홍보대사인 케이트 윈슬루가 직접 선택해 착용했을 만큼 세련된 디자인이 단연 돋보인다. 스틸과 옐로 골드, 로즈 골드로 출시되고, 38.5mm 케이스에 L609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이 밖에도 론진은 젊은 미국인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하고 론진 시계를 착용한 최초의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설의 워치를 오마주한 린드버그 아이 영웅 워치 90주년 기념 에디션도 90개 한정으로 선보였고, 1백85년 동안 지속된 론진의 워치메이킹 전통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완성한 '론진 헤리티지 1945'를 출시해 사랑을 초월한 론진 워치의 헤리티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의 02-3149-8232 에디터 권유진



3



# forever Brilliant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경이롭다. 오직 여성들에게만 허락된 이 황홀함은 저마다의 예술적인 터치로 더욱 극대화되어 바젤월드 곳곳으로 피어났다. 눈을 땔 수 없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2017년 하이주얼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루체아 문레이즈 문레이즈 디테일이 여성스럽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여성 워치, 불가리의 대표 여성 워치인 루체아 컬렉션에 문레이즈 기능을 적용해 기술력은 물론 예술성까지 동시에 갖춘 새로운 타임피스다. 특히 문레이즈 디스플레이의 하늘은 두 가지 영롱한 컬러와 패턴을 지닌 원색으로 표현해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달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이 하늘 컬러에 맞춰 악어가죽 스트랩을 통일감 있게 매치해 완벽한 균형을 완성한다. 문의 02-2056-0172

**블랑팡 발레테 데이트 문레이즈** 블랑팡을 대표하는 발레테 컬렉션에 데이트 문레이즈 기능을 더한, 블랑팡에서 선보이는 가장 여성스러운 특징이 담긴 시계다. 직경 29.2mm의 아담한 다이얼이 돋보이며, 베젤을 따라 48개의 풀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레이즈 창을 통해 보이는 달은 알기에 잠이 찌러 있는 여성을 형상화했는데, 이는 18세기 유럽의 귀족 여인들이 구혼자에게 보내는 예사에서 영감을 받아 적용한, 유쾌한 반전이 숨겨져 있다. 문의 02-6905-3367

**샤넬 워인 주얼리 프리미에르 가멜리아 스킨캐롯** 샤넬은 올해 스킨캐롯에조차 브랜드 특유의 여성성을 부여해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는 마법을 발휘했다. 팔각형 베젤이 특징으로, 다이얼 중앙에 동백 꽃잎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스킨캐롯 갈라비 2를 장식했다. 동백 꽃잎을 3D 입체화하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특히 베젤, 케이스는 물론 화이트 골드 스텝에 다이아몬드를 빼곡히 세팅한 버전은 샤넬의 주얼리 세공 노하우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타임피스다.

**샤넬 워인 주얼리 마드모아젤 프라베 오버핀** 샤넬의 에-벨 장인, 세공 장인, 조각 장인, 세팅 장인 등 각 분야 최고 마스터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샤넬의 예술성을 최고조로 보여주는 마드모아젤 프라베 컬렉션은 샤넬 워인 주얼리 부스의 하이라이트다.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소중히 여긴 상징과 오버핀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스케이스를 채우는데, 올해는 가브리엘 샤넬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오버핀 고아원의 스테인드글라스 원도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적 디테일을 다이아몬드로 아름답게 표현했다. 문의 02-3442-0962

**그라프 스톱우울 워치 바젤월드**의 수많은 부스 중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은 단연 그라프다. 다이아몬드의 왕의 자락을 과시하듯 이번엔 하늘에서 싹트고 내려오는 눈꽃의 매혹적인 모습을 구현해낸 정교한 다이아몬드 시계로 주목받았다. 눈꽃의 기하학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직경 25mm로 그린 페인팅을 3D 프린팅 소재를 통해 분쇄, 그 구조와 유연성, 비율의 완벽함을 완성했다.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와 세라미엄을 세팅했으며, 손목의 곡선을 따라 유려하게 흐르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에 경탄하게 될 것. 문의 02-2256-6810

**브래게 레인드 네이플 프린세스 8965** 브래게의 신제품 중 모두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기계식 워치에 보석을 화려하게 수놓은 하이주얼리 워치다. 특히 돋보이는 달궁형 케이스의 레인드 네이플은 여성 워치 컬렉터를 압도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시계다. 이는 올해 나폴리 여왕인 카롤린 워치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로즈 골드와 옐로우 케이스와 총 1백4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탈릭 브레이슬릿이 여왕의 우아함과 품격을 드러낸다. 문의 02-3479-1008 에디터 **권유진, 이자진**

## BVLGARI



**세르펜티의 무한 변신**  
올해 불가리 파빌리온에서는 불가리의 아이콘인 세르펜티가 주인공 중 하나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쇼윈도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여성 바이어와 프레스, 고객을 사로잡으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여성 시계는 단연 '뉴 세르펜티'로, 형형색색 다이얼과 팔목에 두 번 감는 형태의 스타일리시한 더블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뉴 세르펜티는 부스 곳곳에서 "에쁘다", "사교심 다"라는 감탄사와 함께 SNS에도 업데이트가 활동하게 많이 된 시계 중 하나다. 그간 불가리만의 금세공 기술과 하이주얼리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르펜티의 DNA인 뱀 모티프를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해온 불가리는 기존의 화려하고 대담한 하이주얼리의 위치 디자인을 보다 젊고 웨어러블하게 변화시켜 그동안에는 선보인 적 없는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했다. 뱀의 머리를 미니멀하게 형상화한 케이스와 물방울의 일종인 카롱(Karung) 소재의 더블 가죽 스트랩으로 세르펜티 컬렉션의 새로운 아이콘이 탄생시킨 것. 독특하고 특별한 비늘 패턴의 부드러운 광택을 지닌 카롱 가죽에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레드, 블랙 등 선명하고 강렬한 컬러를 입힌 더블 스트랩은 특별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통해 혼자서도 손쉽게 다른 컬러의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스타일리시하다. 실제 뉴 세르펜티 워치를 구입하면 고객에 선택한 두 가지 컬러의 스트랩을 제공하니 하나의 시계로 두 가지 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5월부 터 불가리 부티크에서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을 선보이니 취향에 맞게 추가로 구입해 매치해도 좋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재미있는 부분은 세르펜티 맞춤형 제작 앱을 통해 케이스부터 다이얼, 자석 세팅, 스트랩, 백케이스 인그레디언까지 나만의 맞춤형 세르펜티 워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컬러와 옵션 조합이 무려 3백27개에 달한다고 하니 나만의 세르펜티를 창조하고 동시에 그간 열망했던 유니크한 시계를 디자인할 기회인 셈이다.

# The World Records

불가리 부스 외관에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다. 'OCTO finissimo THE THIRD WORLD RECORD (세 번째 신기록)', 바로 불가리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얇은 울트라-스킨 셀프와인딩 시계인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에 대한 이야기다. 경기 참례로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인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불가리는 또 다시 워치메이킹의 한계에 도전했다.



**세 번째 세계 신기록,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  
불가리가 올해 또 다시 월드 레코드를 갱신했다. 2014년에 출시한 옥토 피니시모 투르비옹과 2016년 미닛 리피터의 뒤를 이어 벌써 세 번째 세계 신기록이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월드 레코드를 기록한 건 불가리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불가리의 파빌리온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북적이며 강렬한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이번엔 선보인 울트라-스킨 셀프와인딩 시계인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은 케이스 두께 5.15mm,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두께 2.23mm로 한치(1/2) 이하의 시계 중 가장 얇다. 이는 단순히 두께를 줄이고 기존 요소의 크기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얇은 두께를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부터 아주 작은 요소까지, 그리고 매개키셀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부품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케이스와 다이얼을 이루는 전체적인 모든 요소를 검토해 다시 한번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워치메이킹 분야의 주요 허브로 자리 잡은 주라 신막에 위치한 불가리 매뉴팩처는 진정한 워치메이킹 마스터로서 이번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을 위해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라비 BVL130을 개발했다. 2.23mm라는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이 무브먼트는 현재 출시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로, 시간당 2만1천6회 회전해 안정적으로 동력을 제공하며 6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것이 특징. 또 플러티늄 소재의 마이크로 로터는 효율적인 와인딩을 가능케 한다. 얇은 울트라-스킨 시계 칼라비 개발에 많은 제인이 수반됐는데 이 무브먼트 위에 정교한 수공 장식인 코트 드 주네브(Côtes de Genève)와 사블러 그레인 피니싱을 더했다. 이는 점 또한 단연 돋보인다. 이처럼 극도로 얇은 두께의 시계를 우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볼륨감과 형태가 무엇보다 중요한다. 미니멀하지만 대담하고 현대적인 옥토의 아이콘적인 팔각형 케이스는 이 얇은 두께를 더욱 강렬하고 우아하게 부각한다. 그간 이 독특한 형태와 소재의 이상적인 조화를 선보여온 옥토 피니시모는 이번엔 골드와 스텝에 이어 케이스와 다이얼에 티타늄을

채택하고 이를 샌드블라스트 피니싱 처리해 더욱더 모던하게 재탄생했다. 특히 원근법과 빛의 효과를 활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반짝이는 반사 효과를 내지연스럽게 시선을 사로잡는다. 소재의 특성상 얇은 두께만큼이나 매우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럭셔리한 옐로가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과 완벽하게 세공한 링크로 구성된 티타늄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버전, 두 가지로 선보이는데, 두 가지 모두 우월한 기질 수업을 만큼 매력적이다. 옥토 미니멀들에게 하나 더 나은 소식은, 바로 월드 레코드를 기록한 이 경이로운 워치를 수역원이 아닌 1천원대의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로써 당시에 올해 불가리에, 특히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다.

1, 2 올해 불가리 파빌리온은 월드 레코드를 기록한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과 뉴 세르펜티가 주인공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제품이 부스의 메인을 차지했다. 3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라미엄의 투명함이 더욱 돋보이는 티타늄 소재의 옥토 투르비옹 시계이다. 4, 7 물방울의 일종인 카롱 소재로 제작한 더블 스트랩이 매력 포인트인 뉴 세르펜티 컬렉션. 5 현재까지 출시된 시계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 워치. 6 부드러운 세이프,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동성합 리얼로폼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뉴 옥토 로마.



● sponsored by BVLGARI photo by frame studio



# This is Your Time

1백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바젤 페어가 처음 열렸을 때 1번 부스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 티쏘가 있었다. 시계 역사의 신장인 티쏘는 바젤월드 개최 1백 주년을 맞은 올해,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오랜 역사가 투영된 합리적인 가격대의 신제품을 선보여 자력을 과시했다.



1 1백 년 전, 바젤 페어의 1번 부스에 자리했던 티쏘 부스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장 관람객들로 붐비는 곳 중 하나다. 2 그간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불 수 있었던 실리온 스프링 밸런스를 탑재한 티쏘 발라드 컬렉션. 3 이번 바젤월드에서 티쏘는 1백 년 전에 선보인 빈티지 워치들과 이를 복기한 시계를 전시했다. 4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맛이 공존하는 티쏘 트래디션 오토매틱 스물 세컨드. 5 여성스러운 디테일을 가득 품은 티쏘 타-웨이브. 6 빈티지한 가죽 스트랩을 더해 보다 스포티한 느낌으로 탄생한 티쏘 크로노 XL.



● sponsored by TISSOT photo by frame studio



## 매력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하이엔드 기술력

바젤월드에서 관람객들로 가장 붐비는 부스를 꼽자면 단연 티쏘다. "티쏘에 가면 원하는 시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티쏘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장 가성비 좋은 위치를 만날 수 있다. 그만큼 티쏘는 일상에서 가볍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워치 라인부터 18K 골드로 제작한 럭셔리 클래식 컬렉션, 그리고 럭셔리 워치 브랜드에서나 찾을 수 있는 하이엔드 기술력을 담은 시계 또한 모두 겸비해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티쏘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파워풀한 워치 컬렉션이 쏟아져 나와 티쏘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최상의 기술력을 적용한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해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완벽함을 더한 티쏘 발라드를 꼽을 수 있다.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은 시계의 부식과 외부 충격 방지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랜 시간 지속되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하이엔드 럭셔리 워치 브랜드에서는 이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한 시계를 선보여왔다. 티쏘 역시 올해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이스프링을 개발하고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파워 매트릭 80 무브먼트에 장착해 시계의 심장을 더욱 강화했다. 티쏘가 2017년에 선보이는, 가장 주력하는 제품이자 대표 시계인 만큼 어느 연령대나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버전의 가죽 스트랩 워치와 두 가지 버전의 스틸 워치, 총 네 가지 스타일의 남녀 워치로 출시한다. 특히 베젤과 인덱스에 로즈 골드를 적용한 스틸 가죽 스트랩 버전은 클래식함과 동시에 독특한 소재의 결합이 돋보여 남

다른 워치 디자인을 찾는 이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티쏘 발라드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T-클래식 오토매틱 라인인 티쏘 특유의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티쏘 트래디션 오토매틱 스물 세컨드 카운터는 클래식함의 절정을 이루는 시계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도시 남성용을 위한 과감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날렵하면서 아름다운 굴곡을 더한 실루엣과 부드럽게 폴리싱 처리한 베젤, 우아한 골드 케이스는 이 시계에 흥미로움을 더한다. 이 밖에도 티쏘 기술력의 집약체로서 중요한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한 티쏘 슈망 데 푸렐 컬렉션은 스위스 워치메이킹 전통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티쏘 슈망 데 푸렐 헤비틱 프라이드 스페셜 에디션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했다. 라틴어로 스위스를 뜻하는 'Helvetia'라는 제품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스위스의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이얼에는 스위스 국기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 형태를 새겨 넣었고, 백 케이스에는 스위스 동전에 있는 헬베티아 여신 모티브를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더불어 1853년 티쏘가 탄생한 스위스 로코클 마을을 기념하는 클래식 라인인 티쏘 르로콜 컬렉션은 80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 기능의 파워 매트릭 80 무브먼트를 탑재한 티쏘 르로콜 파워 매트릭 80으로 재탄생해 파워풀한 면모를 과시하며 손목 위에 품격과 기술력을 더했다.

## 지금 당장 구매하고 싶은 실용적인 컬렉션

티쏘는 올해 개최 1백 주년을 맞은 바젤월드에서 1회부터 참가한 단 2개의 브랜드 중 하나다. 그만큼 유서 깊은 위치에 이커인 티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매력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다. 사실 스위스 메이드 워치의 매력은 바로 완성도 높은 무브먼트와 섬세한 피니싱인데, 티쏘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매년

출사하는 제품도 다양하다. 그중 최근 티쏘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 워치 컬렉션이다. 실제로 바젤월드에서 여성 워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는데, 올해는 여성스러운 미니 다이얼 디자인을 대거 선보였고, 티쏘 역시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다. 이 중 국내에서 핵심적으로 릴리즈하는 제품은 티쏘 타-웨이브 컬렉션. 실크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이 우아하고 아름답다. 케이스와 러그의 곡선은 부드러운 터치감을 담고 있는데,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핸즈와 12시 방향에 세팅된 눈물방울 같은 시침의 인덱스는 여성미를 극대화한다. 스틸 소재에 장식적 요소를 모두 배제한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얼을 더한 기본 모델은 데일리 워치로, 실크 리본의 웨이브를 다이얼 위에 다이아몬드로 형상화한 로즈 골드 모델은 칵테일 워치로 제작이다. 40만원대부터 70만원대의 가격은 이 새로운 여성 워치 컬렉션에 매력을 더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만일 올해 새로운 워치 라인업을 완성하고 싶은 남성이라면 티쏘 크로노 XL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 빈티지한 가죽 스트랩을 더해 스포티한 느낌으로 완성한 티쏘 크로노 XL 컬렉션은 커다란 다이얼 자체가 압도적인 매력을 풍긴다. 45mm에 달하는 빅 다이얼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12·3·6·9시 방향에 볼드한 아라비아 인덱스로 시간을 표기해 현대적인 매력과 확실한 가독성을 동시에 선사한다.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MIDO photo by frame studio



# Aesthetics of Time

미도는 올해 SNS를 통해 새로운 시계의 영감이 될 건축물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 주인공으로 선정된 구겐하임 워치의 스케치를 바젤월드에서 공개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브랜드의 열정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세계적인 건축 아이콘에 대한 미도만의 상상력을 여실히 투영한 최신 컬렉션을 선보이며 타임리스 클래식스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상상력을 공유하다

#Be Inspired by Architecture.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의 마니아라면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다'라는 해시태그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미도를 떠올리면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 미학과 고집스러운 정도로 기계식 무브먼트를 고수하는 워치메이커의 열정이 떠오른다. 세계 건축가협회(UiA)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정도로 건축 세계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미도는 그동안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박넌 등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시계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그리고 작년 여름, 소셜 미디어를 통해 #Be Inspired by Architecture 캠페인을 론칭하며 서울과 홍콩, 베이징, 모스크바, 루체른, 멕시코 시티에 이르는 12개 전설적인 도시를 방문해 대중이 즐겨 찾는 60개의 유명 건축물을 탐험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건축 아이콘을 선별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투어에 그치지 않고 매 장소마다 소셜 네트워크와 로컬 행사에 광고를 하면서 미도를 사랑하는 마니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미도의 새로운 워치를 위한 최종 주인공을 대중과 함께 선정했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그 결과,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미도의 최신 모티브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혁신성, 시간을 초월한 상징성을 지닌 최고의 건축물이란 판단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미도의 CEO 프란츠 린더는 "이 멋진 월드 투어 이벤트는 대중과 함께 미도의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시작된 12주간의 여정 중 우리는 12개의 도시와 60개의 건축물을 투어했고, 미도 마니아들은 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약 2만 개의 명소 사진을 공유했고, 마침내 뉴욕 시의 구겐하임 박물관이 새로운 미도 시계에 영감을 불어넣어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1차 결과물은 올해 바젤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시계 디자인 스케치를 선공개해 화제가 되었다. 비록 아직은 스케치 단계지만, 현대미술관인 구겐하임을 어떻게 워치 디자인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은 미도 부스를 찾은 관람객 모두가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다. 올해 안에 공개될 구겐하임 워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존의 매력적인 컬렉션 역시 라인을 확장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표적으로 런던 로열 앨버트 홀의 우아한 곡선 디자인을 구현한 '벨루나 블

1, 5 유명 건축물들에 대한 미도의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미도 부스. 2 오페라하우스의 둥근 건축물을 형상화한 '버논젤리 프리즈' 여성 워치. 3 스웨이 기묘세 스타일의 딥 블루 다이얼이 특징인 '벨루나 블루레이'. 4 밀라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 II의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비론젤리 헤리티지'. 6 미도의 대표 다이아 워치인 '오션 스타 갈리버 80 티타늄'.



루레이 컬렉션과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대명사로 통하는 밀라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 II를 섬세하게 표현한 '비론젤리 헤리티지' 신모 델이 바로 그것. 고급스러운 딥 블루 컬러 다이얼에 로즈 PVD 코팅 케이스, 여기에 브라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벨루나 블루레이 컬렉션은 런던 로열 앨버트 홀의 빅토리아 양식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동심원을 이루는 둥근 형태의 구조물이 특징인 로열 앨버트 홀은 화려한 유리 돔 지붕으로 더욱 유명하다. 벨루나 블루레이 컬렉션의 블루 다이얼을 장식하는 섬세한 선레이 기묘세 패턴이 바로 이 유리 돔 지붕의 곡선에서 차용한 것이다. 고전미가 흐르는 우아한 시계에는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정교한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직경 42.5mm 사이즈로 제작한 벨루나 블루레이 워치는 3시 방향에 날찌창과 요일창을 배치해 실용성도 갖췄다. 밀라노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 II에서 모티브를 얻은 비론젤리 헤리티지 컬렉션은 세계적인 건축물이 지닌 시간을 초월한 우아함을 직선과 곡선 디테일로 표현한다. 특유의 슬림한 라인, 가벼운 착용감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컬렉션은 올해 남녀 커플 워치로 출시됐

다. 그 때문에 결혼을 앞둔 클래식 시계 애호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로즈 PVD 코팅 처리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 클래식한 투톤 브레이슬릿이 세련된 조화를 이루는 시계는 남성용 39mm, 여성용 33mm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정교한 기계식 시계를 선호하는 여성이라면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지닌 '비론젤리 프리즈' 역시 눈여겨볼 것. 프랑스 렌 지역에 위치한 오페라하우스 디자인에서 착안한 시계는 다이얼 중앙에 25개의 진주를 수직선으로 새공하고, 그 윤곽을 따라 5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여성미를 강조한다.

활동적인 남성을 위한 견고한 다이아 워치, 오션 스타 레트로 붐을 이룬 2017년 바젤월드를 관통한 또 하나의 트렌드는 바로 스포티한 디자인의 다이아 워치다. 많은 남성들이 다이아 워치를 데일리 워치로 선택하는 건, 다이아 워치 특유의 강인한 남성미와 실용성이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도에서도 다이아 워치인 '오션 스타 갈리버' 국내에서 일등이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며 미도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했으니, 다이아 워치에 대한 남성들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것. 올해는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도를 자랑하는 오션 스타 컬렉션에서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 소재를 활용한 신제품을 출시해 다이아 워치 컬렉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빈티지한 오렌지 러버 스트랩이 한눈에 시선을 잡아끄는 '오션 스타 갈리버 80 티타늄'이 그 주인공이다. 1944년 첫선을 보인 오션 스타는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유로파 포인트 등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맞서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강인한 건축물의 실루엣은 시계 핸즈와 인덱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경 42.5mm의 '오션 스타 갈리버 80 티타늄' 워치는 전설적인 다이아 워치의 후예답게 최대 20bar(200m)에 달하는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을 지녔다. 시계가 역회전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단방향 회전 베젤, 난반사방지 처리한 이중 시야이커 크리스털, 어두운 심해에서는 물론 야간에도 가시성을 확보하는 슈퍼-루미노바 코팅 인덱스 & 핸즈 등 전문 다이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추었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권유진







한 트렌드를 반영한 시계를 출시했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1968년 탄생한 '크로노그래프 B'에서 영감을 받은 인트라 매트릭 68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블랙 다이얼에 화이트 서브 다이얼을 매치한 라바스 판다 다이얼로 유명한 크로노그래프 B는 1960~70년대에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오늘날까지 시계 컬렉터 사이에서 두고두고 화제되는 제품이다. 새롭게 출시한 인트라 매트릭 68 워치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깔끔한 블랙 & 화이트 모노크롬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고 여기에 화이트 타카미터 스케일,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지닌 H-31 오토매틱 무브먼트, 기존 모델보다 커진 42mm 케이스, 스포티한 편칭 디테일의 슌 이자 가죽 스트랩, 슈퍼-루미노바 코팅 사침과 분침을 더했다. 탄생 연도인 1968년을 기념해 오직 1천9백68피스만 한정 제작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해밀턴을 대표하는 '재즈마스터' 컬렉션은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H-13 무브먼트를 탑재한 혁신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42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워치는 브랜드 최초로 파워 리저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장착했다. 9시 방향에 위치한 이치 모양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끝부분에 붉은 컬러 포인트를 더해 시계 다이얼과 강렬한 색채 대비를 이루며 시계에 모던한 느낌을 선사한다. 다이얼은 블랙·실버·화이트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죽 스트랩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만날 수 있다.

# American Dynamics

아메리칸 정신을 담은 해밀턴의 역동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는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강렬하게 느껴졌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랑한 밴추라 워치 탄생 60년을 맞아 부스 벽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래픽으로 가득 채워졌고, 해밀턴을 사랑하는 마니아들이 환호할 만한 전설의 워치들도 대거 쏟아지며 해밀턴 부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를 띠었다.

실용적인 미국 감성을 담은 완성도 높은 시계를 만나다 미국적 헤리티지와 정밀한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력의 만남. 이는 다시 말해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에 실용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밀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브랜드의 특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1892년 미국 링컨셔에서 탄생한 해밀턴은 4백여 편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소개되었을 만큼 미국적인 감성에 스위스의 워치 기술력을 담아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뽐내는 브랜드다. 그만큼 바젤월드에서도 취재 알'가 뜨거운 브랜드 중 하나인데, 올해는 이 브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념비적인 워치 컬렉션을 대거 출시해 '2017년은 해밀턴의 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7 바젤월드에서 가장 화제가 된 NEW 브로드웨이 컬렉션은 해밀턴 특유의 도화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 시계다. 지난해 론칭과 동시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브로드웨이 컬렉션은 뉴욕의 스카이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 다이얼 위아래를 대담하게 가로지르는 세로 줄무늬와 선명한 컬러의 중앙 라인, 시계를 묘사하는 이원 인텍스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고층 빌딩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글루보한 감각, 단단한 스테일이 돋보이는 시계에 대담한 컬러와 패턴을 더해 한결 강렬한 매력을 뽐낸다. 2017년 모델은 43mm 사이즈의 브로드웨이 오토 크로노, 42mm 사이즈의 브로드웨이 오토매틱 데이 데이트, 40mm 사이즈의 브로드웨이 퀴츠 등 총 세 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버건디 컬러 다이얼에 2개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12

시와 6시 방향에 조화롭게 배치한 '브로드웨이 오토 크로노' 워치는 정교한 H-2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 60시간 파워 리저브, 100m 방수 기능을 갖는다. 블루 컬러의 타카미터 베젤, 3시 방향에 위치한 요일창과 날짜창으로 실용성은 물론, 그래픽적인 효과 역시 극대화했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블루 컬러 라인이 돋보이는 '브로드웨이 오토매틱 데이 데이트' 워치는 H-3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해 더욱 강력한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6시 방향에 요일창과 날짜창이 위치한 시계는 다이얼과 동일한 버건디 컬러 가죽 스트랩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옐로 & 블루, 브라운 & 그레이, 화이트 & 핑크 화이트 등 다채로운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브로드웨이 퀴츠' 버전은 누백 가죽 스트랩 외에도 스테일리 시한 해링본 패턴의 페브릭 스트랩으로 만날 수 있다.

세계 애호가들 사로잡을 전설적인 워치 컬렉션 2017년 바젤월드는 클래식 시계 애호가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각 워치가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1백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해밀턴 역시 여러



1,6 뉴욕의 고층 건물을 연상시키는 선명한 세로 줄무늬 다이얼이 특징인 '브로드웨이' 컬렉션. 세 가지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2 블랙 & 화이트의 '판다' 다이얼로 유명한 1968년 버전 크로노그래프 B에서 영감을 받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인트라 매트릭 68'. 3 해밀턴 재즈마스터의 새로운 얼굴, 재즈마스터 파워 리저브. 4 독특한 삼각형 케이스 디자인이 돋보이는 밴추라 컬렉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밴추라 60'이 '타카미터', '밴추라 클래식', 5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랑한 밴추라 워치'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해밀턴 부스의 벽면은 그의 그래픽으로 가득 채워졌다. 7 자유롭고 세련된 미국 감성과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력의 결합을 엿볼 수 있는 '해밀턴 부스'.



1 미니멀리즘 콘셉트의 컬렉션으로 꾸민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부스. 2,6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리시드 패턴 다이얼 중앙의 ck 로고가 특징인 '미니멀' 컬렉션. 3 심플한 디자인의 주얼리, 후크 컬렉션. 4 시계엔 아.라 브레이슬릿 액세서리로 활용 가능한 '시크' 컬렉션. 5 스포티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지어내는 '부스트' 컬렉션. 7,8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이 돋보이는 '엔드레스' 컬렉션.



# New Minimalism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바젤월드에서 제품의 완성도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스위치 그룹의 핵심 멤버로 이러한 어려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특별한 브랜드가 있다. 바로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가 이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전 세계인을 스위스 메이드 워치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 스위치 그룹에 속한 유일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워치, 캘빈클라인

디자이너의 개념이 없던 시절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고유 영역을 개척하고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를 오래도록 지켜온 미니멀리즘의 대명사 캘빈클라인이 라프 시몬스(Raf Simons)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알렸다.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변화는 스위치 그룹에 속한 캘빈클라인 워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라프 시몬스가 다시금 정의하는 캘빈클라인의 에너지는 보다 젊고 산뜻한 모델들이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에 담긴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다. 이미 1990년대에 대담함과 색시함의 상징이었던 이 브랜드의 캠페인은 거칠 것이 없는 자유분방함을 감각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풀어냈는데, 바젤월드의 캘빈클라인 부스에서 이러한 면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역시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 시계 브랜드로 스위스 기술력을 갖춘 스위치 그룹 산하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위치 그룹 내에서 유일한 패션 시계 브랜드라는 것 역시 캘빈클라인이 독보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쟁하는 패션 워치와 유사하게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스위치 그룹의 지원 아래 뛰어난 스위스 메이드의 퀄리티를 선보이기에 지금까지 높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를 산하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위치 그룹 내에서 유일한 패션 시계 브랜드라는 것 역시 캘빈클라인이 독보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쟁하는 패션 워치와 유사하게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스위치 그룹의 지원 아래 뛰어난 스위스 메이드의 퀄리티를 선보이기에 지금까지 높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라프 시몬스의 합류로 더 시크하게 변한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컬렉션은 더욱더 단순하고 심플해졌다. 본질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답게 디자인적인 DNA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 사실 최근에는 애플이나 무인양품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를 통해 단순함이 대중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었지만, 캘빈클라인이 처음 등장한 1960년대에 미니멀리즘은 꽤나 어려운 주제였다. 하지만 캘빈클라인은 이를 고유의 가치로 꾸준히 발전시켰고,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테이터, 유니섹스 스타일을 대표하는 미니멀, 섬세하고 쾌활한 콘셉트의 엔드레스는 캘빈클라인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중 가장 '캘빈클라인다운' 디자인을 선택하려면 얇고 가벼운 다이얼이 시선을 끄는 '시크(Chic)' 컬렉션이다. 단순한 원형에 가늘고 심플한 새틴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한 느낌까지 지어낸다. 정교한 다이얼을 구성하는 미니멀 글라스는 캘빈클라인을 완성하는 차가운 금속성을 대변한다. 38mm 사이즈에 30

만원대로 선보이니 가격은 더욱 매력적이다. 캘빈클라인 연관 검색어에 '20대 여성 워치'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심플한 매력 덕분일 듯. 듀얼리티(duality)라는 테마를 반영한 남성 워치인 '부스트(Boost)'는 대비되는 다이얼의 컬러 조합이 인상적인 컬렉션이다. 두 가지 컬러 블록 덕분에 2단으로 보이는 다이얼은 스포티하면서도 모던하고 심플한 인텍스가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한다. 실제 판매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멀(Minimal)' 컬렉션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이자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마치 햇살이 비치는 듯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선 브러시 실버 다이얼에 큰 사이즈의 ck 로고가 인상적이다. 바젤월드 부스에서도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은 모델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유니섹스 컬렉션이다. 심플한 다이얼에 오직 브랜드 로고만으로 강렬함을 더한 데서 지금껏 캘빈클라인다운 디자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시 밴드로 미니멀한 감성에 개성을 더했다. 26mm에 불과한 미니 사이즈의 '엔드레스(Endless)' 컬렉션은 캘빈클라인에서는 이례적으로 핑크, 페트롤 그린 등 다양한 컬러의 레더 스트랩을 더해 유쾌하게 완성했다. 2017년 컬렉션의 주체인 'youth'를 콘셉트로 해 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다. 문의 02-2143-1829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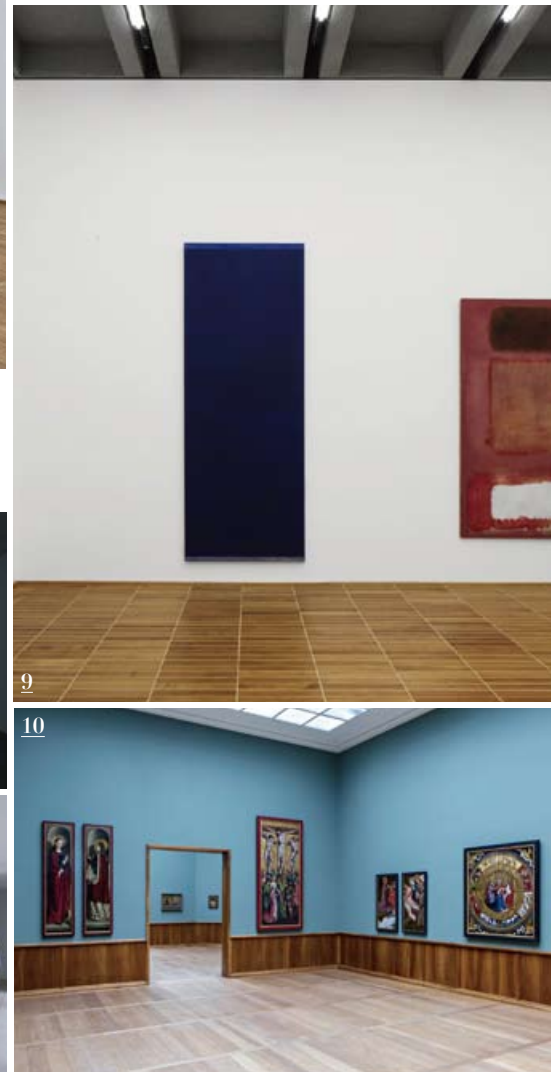
● sponsored by HAMILTON photo by frame studio



# 바젤의 고귀한 보석이자 시민과 컬렉터의 뮤지엄 Kunstmuseum Basel



1 새롭게 건축한 왼쪽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콘스트뮤지엄 바젤 메인 빌딩이 위치한다. 2 건축학적인 매력을 담고 있는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의 내부 계단. 3 메인 빌딩의 바닥 컬러와 텍스처는 새로운 현대관의 내부 마감재와 유사하다. 사진 속 작품은 스위스 태생의 작가 페르디난트 홀더의 대형 작품(Ferdinand Hodler, Blick in die Unendlichkeit, 1913/14-1916)이다. 4 시에서 운영하는 뮤지엄이기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5, 6, 8 최신 현대미술을 총망라한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의 내부. 7 소장 가치가 높은 다양한 설치미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 속 작품은 개념주의 예술가인 존 발데사리의 작품(John Baldessari, Title, 1972 @Gina Folly). 9 바넷 뉴먼(Barnett Newman, Day Before One, 1951)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현대관 내부. 10 콘스트뮤지엄 바젤 메인 빌딩 내부의 나무 바닥 재질은 현대관(오른 사진) 바닥에도 재현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메인 빌딩과 새로운 빌딩이 건축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스위스 바젤은 박물관의 도시이자 인구당 뮤지엄 수(인구 1만 명당 뮤지엄 1곳)가 가장 많은 예술 도시다. 바젤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이 도시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상징하는 드라마틱한 장소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 미술관인 이곳은 지난해 기존 미술관에 현대관을 추가로 개관하며 세계 예술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에 취재를 하며 가장 많이 언급된 이야기는 정책과 행정 원칙에 기반한 시민을 위한 박물관이라는 설명이었다. 아직 정부 주도의 예술 사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국내 실정에서는 매우 부러운 이야기다.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디렉터 요제프 헬펜슈타인이 오직 <스타일 조선일보-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7>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 최초의 공공 아트 전시장, 콘스트뮤지엄 바젤

콘스트뮤지엄 바젤(Kunstmuseum Basel)은 스위스 박물관회와 예술을 상징하는 도시인 바젤의 자부심이고 세계적인 박물관 사이에서 떠오르는 셋별 같은 존재다. 오래도록 수집해온 진귀한 소장품들의 가치 덕분에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4천여 개의 페인팅, 조각품, 설치미술, 비디오와 더불어 7세기에 걸친 30만 점의 그림과 프린트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6년 봄, 메인 빌딩 건너편에 새롭게 확장한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이 완공되며 이제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3개의 뮤지엄(The Kunstmuseum Basel Hauptbau, The Kunstmuseum Basel Gegenwart, The Kunstmuseum Basel Neubau)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롭게 개관한 이 멋진 빌딩과 콘스트뮤지엄 바젤 전관을 취재하는 것은 <스타일 조선일보>의 바젤 스페셜 에디션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차원이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켜가는 바젤이라는 도시의 역사성이 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의 주제가 되는 시계 박물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술관의 역사는 매우 독특한데, 1661년 법률학자 바실리우스 아머바흐(Basilius Amerbach)의 수집품이 암스테르담에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젤 시에서 캠페인을 통해 9천 달러(유럽에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통용된 은화)를

모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액수의 1/3은 바젤 도시 기금에서, 나머지는 바젤 대학교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이 세계 최초의 퍼블릭 아트 컬렉션은 바젤이 지금까지 예술적인 도시로 남게 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 1967년 콘스트뮤지엄 바젤이 2개의 피카소 메이저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합의하에 공채 6백만 스위스프랑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때 바젤 유권자의 54%가 이 '예술적 자출'에 동의한 것은 미술계에 회자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바이엘러를 포함해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개인 컬렉터들의 헌신은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컬렉션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 컬렉션, 높은 가격의 대어 작품으로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듯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바젤이라는 작은 도시로 하여금 예술계를 이끌 수 있도록 했고, 유럽의 어떤 커뮤니티에도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시민 뮤지엄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 도시와 예술의 상호작용, 현대 미술로 도약하다

지난 2014년 아트 뮤지엄이 현대관 공사로 인해 1년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시민들은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바젤 시민들에게 이 뮤지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바젤 시민들은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컬렉션

을 지지하고, 뮤지엄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뮤지엄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러한 도시적 배경 속에서 현대미술을 위한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새로운 빌딩은 2016년 완공되어 스위스 박물관 지형에 센세이션을 불러왔고, 동시에 건축적으로도 도시 주거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5명의 프리츠커상(Pritzker Prize)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이 익명으로 펼친 경쟁을 뚫고 참여해 완성한 현대 미술관은 바젤이 뮤지엄의 도시인 뿐만 아니라 건축의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현대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 되었던 주제는 새로운 건물이 도시 구조와 잘 맞아떨어지고, 기존 미술관 건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빌딩의 인테리어에 사용된 소재도 메인 빌딩과 미묘한 유사성을 띤다. 이 두 빌딩은 지하로 이어져 있는데, 지하를 연결하는 공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작업이었지만, 유기적인 흐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이 새로운 빌딩은 그 어떤 상업적인 목적 없이 예술품을 잘 보존하고 다양한 기회전을 개최하며, 예술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계획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이 상업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순수한 투자와 집중은 스위스 예술, 혹은 유럽 예술의 발전에 더욱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새로운 빌딩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발간한 도록 <Kunstmuseum Basel-New Building> 서문에서 콘스트뮤지엄 바젤, 혹은 뮤지엄이 수행해야 할 현대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방문객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싶었던 것, 즉 통찰력과 감동, 혹은 자금을 얻기 위해 예술품을 보러 옵니다. 이는 집중과 고요함이 가능한 공간과 시간적 여유, 분위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요.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다양한 여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관점과 놀라운 전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 창조적인 대화를 위한 오픈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디터 배미진 바젤 현지 취재*

### Interview - Josef Helfenstein

콘스트뮤지엄의 디렉터 요제프 헬펜슈타인이 <스타일 조선일보-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7>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가치와 3개의 뮤지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들려주었다.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예술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대중과 우리의 '보석'을 공유하도록 정부에서 부여한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Q1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빌딩을 세우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Kunstmuseum Basel Neubau)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지었고, 지난 2016년 봄, 공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들어간 예산은 1억 스위스프랑(한화 1천1백40억 원)에 달하는데 예산의 절반은 공금이고, 나머지 5천 스위스프랑은 로렌츠 재단의 후원을 받았습니니다. 당연히 힘들고 큰 프로젝트였지만, 이에 비해 2개의 예산이 드는 취리히 미술관 건물을 생각하면 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새로운 빌딩을 지은 이유는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닌 컬렉션을 꾸준히 보여주고 인준하게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기존 콘스트뮤지엄 바젤에서 스페셜 전시를 할 때마다 컬렉션의 일부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는 대중에게 작품을 보여주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스페셜 전시가 열리는 동안 기존 메인 빌딩의 작품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전시는 전사대로 개최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니다.

**Q2 미니멀한 건축 구조가 인상적인데, 이 건축물의 형태가 지난 의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건축가를 선정했는지 궁금하다.** 바젤시에서 의뢰받은 건축가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건축가 크리스토프와 간텐베인(Christ + Gantenbein)이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을 지을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제 기업이 참여했고, 24개 스튜디오를 초대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들을 선정한 것이죠. 우리는 콘스트뮤지엄 바젤 메인 빌딩과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 2개의 다른 빌딩이 아닌 하나의 빌딩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대관은 메인 빌딩의 확장 편이고, 입구 역시 같은 곳을 사용합니다. 이 빌딩 둘 다 모두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지요. 새로운 건물의 다양한 요소는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건물의 건축적인 표현 양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건축물의 대화는 건물 중심에 위치한 원형 천공 아래 놓인 개관 계단,

로버와 계단에 있는 거친 스크랩 회반죽,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 정면의 미묘한 색깔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건물마다 어떤 기준으로 큐레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예술 작품과 전시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콘스트뮤지엄 바젤 현대관은 1960년 이후 컬렉션 작품의 스페셜 전시와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메인 빌딩에서는 14~20세기 작품, 컨템퍼러리 전시, 카루프페르스투호베르트 박물관의 컬렉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콘스트뮤지엄 개관비로트는 1980년에 에바뉴엘 호프만 재단과 콘스트뮤지엄 바젤에서 소유한 컬렉션의 현대 아트를 위해 만들었지요. 전시는 예술품과 주제, 목적, 콘셉트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큐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 새로운 박물관에서 선보일 특별한 전시와 행사가 있는지?** 우리는 현재 새로운 건물에서 <Hola Prado>라는 전시를 선보이는데, 마드리드에 위치한 프라도 미술관(Museo del Prado)의 오래된 마스터 페인팅과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작품 사이에 매력적인 대화를 제안합니다. 6월에는 2개의 쇼를 더 오픈하는데, 하나는 세잔(Cézanne)의 작품 전시이고, 다른 하나는 오토 프라운홀더(Otto Freundlich)의 회고전입니다. 9월에는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초기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샘 길리엄(Sam Gilliam), 티에스터 게이츠(Theater Gates), 히토 슈타인(Hito Steyerl), 안드레아 로센(Andrea Rosen)을 포함한 중요도가 높은 선작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Q5 스위스가 직간접 강한 국가인 바젤 역시 직간접 다양한 박물관을 위해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쾌한 박물관들이 집결되어 있는 도시에서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1661년에 지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 박물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적인 도시 바젤의 중심에 있고, 모든 유럽의 중심이자 도시의 문화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 콘스트뮤지엄 바젤의 컬렉션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컬렉션 중 하나라는 것도 큰 역할 중 하나죠. 뮤지엄 자체가 바젤시에서 주 소속이고, 장기 대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인 컬렉션까지 선보이는 등 독특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스트뮤지엄 바젤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 뿐 아니라 교육적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예술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대중과 우리의 '보석'을 공유하도록 정부에서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 있기에 바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spotlights in Baselworld

부스 곳곳에서 들려오는 셔터 소리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워치메이킹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젤월드의 하이라이트 위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ROLEX**  
오이스터 퍼페추얼  
씨드웰러



**OMEGA**  
씨스타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레이디



**BLANCPAIN**  
트리뷰트 투 피프티  
패밀리스 MIL-SPEC



**BREGUET**  
마린 에라시움 마상 5887

B A S E L W O R L D



오메가 레이디, 블랑팡, 아만

키러의 발간 라이카 (861-0406)



**BVLGARI**  
뉴 세르펜티

LEICA CAMERA WETZLAR GERMANY



**CHANEL**  
프리미에르 라 레드

















진정한 하이엔드의 목격지

# ZAGATO

1919년 자동차의 외관을 만드는 코치 빌더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하이엔드 카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독점적인 브랜드가 된 자가토(Zagato)의 지난 1백 년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스위스 바젤 근교의 자동차 박물관 판테온(Basel Pantheon)에서 열렸다. 2017년 4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 전시에서는 진귀한 자가토의 자동차 25대를 소개했다. 숨어 있는 기존 컬렉터를 더 불러 모으기 위해 기획했다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다. 자가토의 수장 안드레아 자가토가 오직 <스타일 조션일보- 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7>을 위해 전해온 브랜드의 목표에 관한 특별한 인터뷰도 담았다.

## 카로체리아에서 이어진 독보적인 명성, 자가토

이탈리아의 브랜드 자가토는 하이엔드 카 혹은 빈티지 카 마니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자동차 마니아가 아니라면 처음 들어본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코치 빌더의 개념을 알아야 자가토를 이해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로는 카로체리아(carrozzeria), 영국에서는 '코치 빌더(coach builder)'로 불리는 이 회사는 다른 회사의 엔진이나 새시를 기본으로 하여 고객들이 특별 주문한 자동차를 설계·제작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1980년대 이전 자동차 회사가 지금처럼 체계적인 생산 공정을 갖추기 전에는 코치 빌더 회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었고,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는 그중에서도 명성이 높았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브랜드도 과거에는 이탈리아 카로체리아에 디자인을 의뢰해 차를 생산했으니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의 컨셉트 등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라 생각하면 된다. 자가토도 이렇듯 이탈리아에서 엔진과 플랫폼을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를 위한 외형을 제작하는 카로체리아로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1백 년이 지난 지금 가치 범접할 수 없는 하이엔드 카의 외형을 제작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일러 메이드 카를 만드는 신개념 코치 빌더로서 명성을 쌓게 된 것이다. 자가토와 컬래버레이션하고, 함께하기를 제안하는 브랜드는 알파로메오, 에스턴 마틴, 페라리, 벤틀리, 마세라티 등으로 그 리스트만으로도 자가토의 진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초고가를 자랑하는 이 자동차 브랜드의 뼈대에 자가토의 이름이 더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희소성 덕분에 수집 대상이 되며 가격은 예술품 수준으로 상승한다. 또 자가토의 고객은 주로 개인이기 때문에 이 컬렉션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를 한곳의 전시장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바젤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 전시는 그 어떤 요소도 평범한 것이 없는데, 자가토의 전시가 열린 판테온 바젤 포럼이라는 전시장 역시 존재 자체가 독특한 곳이다. 바젤 외곽에 위치한 이 엄청난 빌딩은 과거 가장 난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마치 스포츠 경기장처럼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나선형 구조로 마치 달팽이처럼 이어져 있다. 건물 천장은 수리 중인 크레인의 긴 상단 부분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 판테온이라 칭했는데, 스위스의 비즈니스맨이자 자동차 애호가인 슈



1 바젤 판테온에서 개최된 자가토 전시. 1백 년간 이어온 자가토의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2 현재 자가토를 이끌고 있는 안드레아 자가토. 3 1939년에 제작된 알파로메오 자가토. 4 자가토 창립자 우고 자가토. 5,10 1996년 선보인 람보르기니 자가토 모델. 6 1212년 에스턴 마틴과 함께 선보인 V12 모델. 7 이번 전시의 메인 모델로 등장한, 마세라티와 칼라베리아 신세에 완성된 모델. 8 1937년 디자인한 차량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인 람보르기니 스포츠 자가토 모델. 9 1954년 피아트와 함께 이미 독보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



테판 무스펠드(Stephan Musfeld)가 이 건물을 사들였고, 이 공간은 빈티지 자동차부터 자전거, 오토바이, 마차 등을 전시한 '탈것에 관한'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심지어 이곳에 전시된 모든 것들은 사고할 수 있게 가격까지 매겼으니 개성이 아주 강한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마니아적인 취향을 지닌 이 전시장의 소유주가 자가토에 열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전시장 오너의 관심 덕분에 이곳에서 자가토의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자가토가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빌려준 스위스를 비롯한 전세계 컬렉터들의 열광적인 호응 역시 이번 전시를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려운 자가토의 명차를 모으고, 컬렉터들의 관심을 환기한다는 목표까지 담고 있다. 브랜드 창립 1백 주년의 해인 2019년이 다가오기에 숨겨져 있는 자가토 수집가들과 소통을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테일러 메이드 카(tailor-made car)의 창시자 안드레아 자가토

우고 자가토(Ugo Zagato), 엘리오 자가토(Elio Zagato), 그리고 현재의 CEO 안드레아 자가토(Andrea Zagato). 자동차 마니아라면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1919년 탄생한 이 특별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안드레아 자가토는 1960년 4월 26일 밀라노에서 태어난 자가토 가족의 3세대로, 자가토 브랜드를 이끄는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01** 지금 자가토의 가치를 만들어낸 새로운 소재,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전 본래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일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일을 시작했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쉽게 바꾸기도 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한번 작업을 선택하면 당연히 평생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자가토 패밀리에서 태어났지만 자동차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경영이나 파이낸스 쪽 일을 하면서 런던과 뉴욕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80년 무렵 자가토의 비즈니스 방향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고, 아버지와 삼촌의 권유로 자가토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회사가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브랜드에 합류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향한 창조적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2** 패션에서 통용되는 '테일러 메이드'라는 단어를 자동차 업계에 도입한 것도 신선하다.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오더 메이드가 가능한 것인지? 테일러 메이드라는 단어를 자동차에 적용한 건 아직 보면 제가 패션 쪽에서 쌓은 경험을 자동차 디자인으로 옮겨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과거에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에서 자가토라는 남성복 브랜드로 3년 동안 6개의 시즌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밀라노에도 6개의 매장을 운영했어요. 굉장히 잘 가면서 일할 수 있었죠. 너무 즐거웠어요. 나중에 자동차 업계에 들어와 이런 점을 자동차 디자인에도 적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날 위한 단 한 발의 옷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의 용어인 수미주라(su misura, 맞춤 제작)를 테일러 메이드라는 단어로 변용해 자동차에 적용했죠. 이렇게 자가토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날 위한 단 한 발'의 자동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시대에는 지금보다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단 1대만 생산했지만, 실제로 지금 시스템으로는 한 가지 디자인으로 9대의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9대의 차 주인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

요, 그들이 만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상에 나뉘지 가진 단 1대의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디테일을 모두 맞춰주려고 하지만, 처음 디자인한 것과 결과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맞춤 수트를 입었을 때 어깨 근육과 체형에 따라 옷의 라인이 달라져도 차도 마찬가지니까요. 디자인한 카와 실제 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차의 커브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03** 이탈리아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산실인데,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이 자가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는 것, 이탈리아의 문화에서 받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에 일본인 디자이너가 있는데, 일본인이지만 이탈리아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동일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기 때문에 훌륭한 디자인을 하죠. 물론 이탈리아가 로마제국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는 모든 예술이 장인들의 손을 통해 탄생했는데, 창조적인 일에는 장인 정신이 필수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그 누구라도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휴가를 즐기며 문화에 젖어든 것만으로도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4** 자가토의 작업물을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를 믹스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형태와 컬러를 도입해 새로운 자동차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신선하다. 이러한 진보적인 영감은 어떻게 얻는지? 전 황금시대라 불리는 1950~60년대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요. 1950년대의 모든 것들은 불멸이라고 생각해요. 패션도, 자동차 디자인도요. 항상 공부하고 그 시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1950년대 아이코닉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영감이 계속 나와요. 요즘은 1930년대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려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05** 진기차와 자동차 주행 기술이 보급되며 자동차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 속에서 자가토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고 있어요. 전 이런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자가토의 아이덴티티, 컬렉션을 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션 쪽에서 일할 때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1년에 2개의 시즌으로 구성된 프레스타 포르테의 빠른 흐름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자가토는 프레스타 포르테가 아닌 오토 쿨투리입니다. 변화에 잘 맞추어 미구잡이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유지하며 영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고객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가토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우리 브랜드가 소비형 자동차가 아닌, 컬렉션을 위한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매력에 있는 것은 물론 평생 소장하고, 대를 물려 보존하고 싶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처럼 컬렉션을 위한 자동차로서 자가토의 오토 쿨투리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에터 베르니(베르니 친지 취재)



# click a Calendar

2017년 바젤월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의 신제품 리스트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 상황 악화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를 잡기 위해 스위스 워치 브랜드가 팔을 걷어붙였는데, 물론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의 가치와 퀄리티는 그대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스타일 조선일보>는 실제로 구매 가능한 시계를 소개하는 세일즈 캘린더 칼럼을 기획했다. 바젤월드의 모든 신제품이 국내에 입고되는 것은 아니기에 국내 매장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시계만 엄선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기존 베스트셀러 워치의 라인업을 풍부하게 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혔고, 수천만원대부터 수억원대까지의 가격 레인지를 형성한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조차 합리적인 가격의 엔트리 컬렉션을 출시해 '지금 당장 구매 리스트에 올릴 시계가 넘쳐났다. 입고일까지 꼼꼼히 체크한 각 브랜드의 세일즈 캘린더를 참고한다면 실패 없는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이 중,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베스트 워치는 무엇일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BRAND BOOK

**BREGUET**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미니 8928**  
레퍼런스 8928BB-5P-944 DD0D  
가격대 4천4백만원대  
입고일 5월 입고 예정  
문의 02-3438-6218

**BLANCPAIN**



**블랑팡 트리뷰트 투 피피티 페임즈 MIL-SPEC**  
레퍼런스 5008-1130-52A  
가격대 1천6백만원대  
입고일 8월 입고 예정  
문의 02-6905-3367

**OMEGA**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마스터 크로노미터**  
레퍼런스 329.30.44.51.01.002  
가격대 1천2백만원대  
입고일 9월 입고 예정  
문의 02-511-5797

**BVLGARI**



**불가리 뉴 세르펜티**  
레퍼런스 102726  
가격대 9백10만원대  
입고일 5월 입고 예정  
문의 02-3479-6076

**TISSOT**



**티쏘 발라드 파워매틱 80 COSC**  
레퍼런스 T108, 408.16.057.00  
가격대 1백10만원대  
입고일 2월 입고  
문의 02-726-4546

**MIDO**



**미도 오션스타 칼리버 80 티타늄**  
레퍼런스 M026.430.47.061.00  
가격대 1백30만원대  
입고일 5월 입고 예정  
문의 02-3213-5767

**CHANEL**



**샤넬 보이프렌드 트윈드 베이징 골드**  
레퍼런스 H4881  
가격대 4천1백만원대  
입고일 6월 입고 예정  
문의 080-200-2700

**RADO**



**라도 다이아마스트 파워 리저브**  
레퍼런스 R14138206  
가격대 2백70만원대  
입고일 9월 입고 예정  
문의 031-240-1185

**LONGINES**



**롱진 콘셉트 V.H.P.**  
레퍼런스 L3.727.4.66.6  
가격대 2백만원대  
입고일 9월 입고 예정  
문의 02-310-1597

**HAMILTON**



**해밀턴 브로드웨이 오토 크로노**  
레퍼런스 H43516171  
가격대 2백54만원대  
입고일 6월 입고 예정  
문의 02-3149-9593

**CALVIN KLEIN**



**캘빈 클라인 앤들레스**  
레퍼런스 K7V231C1  
가격대 27만원대  
입고일 4월 입고  
문의 02-2143-1829

**HERMÈS**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퍼페추얼 캘린더 플래티넘**  
레퍼런스 CA3.865.630-MM76  
가격대 5천만원대  
입고일 5월 입고 예정  
문의 02-542-6622

에티카 배민진, 권유진, 이지연



OMEGA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레이디 컬렉션** 오메가는 올해 놀라운 수준의 정확성과 기능을 자랑하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마스터 크로노미터 레이디 컬렉션'을 선보인다. 물결무늬를 새긴 큰 형태의 크라운과 특별한 스크-앤드-핀 브레이슬릿에 비율을 재조정한 돛 형태의 링크를 새롭게 장착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욱 강조했다. 직경 38mm와 34mm, 28mm, 37인치 다른 사이즈로 소개한다. 문의 02-511-5797

LONGINES



**론진 레코드 컬렉션** 론진은 브랜드 창립 85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레코드 컬렉션을 발표한다. 상티미에에 기반을 둔 워치메이킹 브랜드의 전통에 따라, 실리코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한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에서 공인한 론진 최초의 제품이라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3149-9532

PATEK PHILIPPE



**파텍필립 파페쥬얼 칼라바 5320G** 파텍필립은 빈티지한 멋을 지어내는 새로운 파페쥬얼 칼라바 5320G를 소개한다. 크림 컬러 다이얼에 시아니 초콜릿 브라운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장착한 이 시계는 별도의 세팅 없이도 2100년까지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을 계산해 날짜를 새겨준다. 문의 02-2118-6030

HERMÈS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레호 앙파사인드** 에르메스는 브랜드 고유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에 유래한 디자인을 결합한 슬림 데르메스 레호 앙파사인드를 공개했다. 약속 시간을 카운터에 맞추면 약속 1시간 전부터 6시 방향에 있는 서브 다이얼에서 종이 울린다. 브랜드 자체 무브먼트 H1912를 장착했다. 문의 02-3015-3281

ZENITH



**제니스 데피 엘 프리메로 21** 제니스는 1969년에 처음 선보인 전설적인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한 단계 뛰어넘은 데피 엘 프리메로 21을 선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1/10초에서 1/100초까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10배 더 빨라진 새로운 엘 프리메로 9004 무브먼트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문의 02-3279-9034

RADO



**라도 하이퍼플루 칸틴 쿡 컬렉션** 라도는 1960년대 브랜드의 시계 컬렉션을 재해석한 하이퍼플루 칸틴 쿡 컬렉션을 내놓았다. 18세기 영국 탐험가 칸틴 제임스 쿡의 이름을 딴 이 컬렉션은 오버사이즈 인덱스에 독특한 화살형 핸즈,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의 회전 베젤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2639-1964

BVLGARI



**불가리 옥토 피니시오 오토매틱** 불가리는 현재까지 출시된 시계 중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옥토 피니시오 오토매틱' 모델을 다시 한번 한계에 도전한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인하우스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라바 BVL 138을 장착했으며, 직경 40mm에 케이스 두께 5.15mm를 자랑한다. 문의 02-2056-0171

CHRONOSWISS



**크로노스위스 시리우스 빅 데이트 스틸 세컨드** 크로노스위스는 기묘세 패턴으로 한층 클래식한 분위기를 지어내는 '시리우스 빅 데이트 스틸 세컨드'를 선보인다. 12시 방향의 커다란 데이트 창이 날짜를 알려주고, 6시 방향에 스틸 세컨드가 위치한다. 로즈 골드와 스틸 케이스, 27자로 출시된다. 문의 02-310-1737

BREITLING



**브라이틀링 내비타이어 라트라팡테** 브라이틀링은 가장 어려운 시계 제조 기술 중 하나인 특별한 스프링-세컨드 기능을 갖춘 최고의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워치인 '내비타이어 라트라팡테'를 공개했다. 45mm 사이즈의 스틸 케이스와 2백50개 한정 수량 레드 골드 케이스로 출시한다. 문의 02-3789-9017

FREDERIQUE CONSTANT



**프레드릭 콘스탄틴 클래식 매뉴팩처 월드타이머** 프레드릭 콘스탄틴은 새로운 버전의 '클래식 매뉴팩처 월드타이머'를 소개한다. 42mm의 초콜릿 브라운 컬러 세계지도는 다이얼과 24개의 도시가 새겨진 링에 상세하게 어우러져 있다. 6시 방향의 날짜창은 월드타이머 기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310-1970

TISSOT



**티쏘 트래디션 오토매틱 스틸 세컨드** 티쏘는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멋이 어우러진 티쏘 트래디션 오토매틱 스틸 세컨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다이얼 속 매혹적인 디테일의 카운터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골드 케이스로 선보인다. ETA 2825-2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3467-8795

TAG HEUER



**태그하이어 캐러라 칼라바 호이어 0143mm** 태그하이어는 '캐러라 칼라바 호이어 0143mm'를 새롭게 출시한다. 스텔레톤 다이얼의 한쪽에는 크로노그래프 칸틀과 오픈워크 날짜 디스크를, 백 케이스에는 스텔레톤 크로노그래프 브리지를 구성하는 레드 칼럼 활과 볼드한 앵커가 자리 잡고 있다. 문의 02-548-6020

BLANCPAIN



**블랑팡 빌레데 데이트 문페이즈** 블랑팡은 우아한 매력의 여성용 타임피스인 '빌레데 데이트 문페이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레드 골드 소재의 워치로, 로맨틱한 문페이즈 창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지름 29.20mm 케이스에 셀프와인딩 칼라바 913QL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6905-3367

MIDO



**미도 벨루나 블루레이** 미도는 우아한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인 벨루나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벨루나 블루레이'를 선보인다. 블루 컬러 다이얼에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의 화려한 유리 돔 지붕의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세밀한 스테이 기호세 패턴 다이얼이 돋보인다. 최대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149-9599

HUBLOT



**위블로 빅뱅 메카-10 컬렉션 킹 골드** 위블로는 브랜드의 상징, '빅뱅 메카-10 컬렉션 킹 골드'를 공개했다. 이 워치에는 위블로 인하우스 매뉴팩처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기계식 매뉴얼와인딩 스텔레톤 무브먼트인 HUB120을 탑재했다. 10일간의 파워 리저브가 듀얼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된다. 문의 02-2118-6208

BREGUET



**브레게 마린 에라시옹 마상 5887** 브레게는 군사차 기능을 담은 마린 에라시옹 마상 5887 모델을 론칭한다. 10시와 11시 방향, 그리고 1시와 2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창이 각각 요일뿐 아니라 월, 윤력을 알려주며, 날짜는 9시와 3시 방향 사이 호를 따라 흐르는 레드 로그리이드 바늘로 표시된다. 문의 02-3438-6218

CHANEL



**샤넬 프리미에르 락 레드** 샤넬은 방동 광장의 형태와 샤넬 N5 향수 병 마개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에르 컬렉션에 샤넬의 레드 컬러 코드를 더한 '프리미에르 락 레드'를 새롭게 출시한다. 두 줄로 감을 수 있는 강렬한 레드 컬러 체인 스트랩과 화이트 자개 다이얼이 어우러져 포인트 주얼리도 손색없다. 1천 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42-0962

ROLEX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쥬얼 씨-드웰러** 롤렉스는 이번 바젤월드에서 신제품으로 더욱 커진 43mm 케이스의 오이스터 퍼페쥬얼 씨-드웰러 워치를 소개한다. 1967년 처음 제작된 전설적인 전문 다이빙용 시계를 오마주한 오이스터 퍼페쥬얼 씨-드웰러는 칼라바 3235를 장착했다. 이 무브먼트에는 독자적인 크로너지(Chronergy) 이스케이프먼트를 포함해 14개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고,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2112-1251

HAMILTON



**해밀턴 인트라 매트릭 68 오토 크로노** 해밀턴은 1968년에 선보인 블랙과 화이트 칼라로인 이루어진 리버스 핀다 다이얼에서 영감을 얻은 인트라 매트릭 68 오토 크로노를 소개한다. 배경과 대비되는 흰색 날짜창, 중앙에 배치된 순백색 크로노그래프 세컨드 핸즈, 블랙 레커 카운터 핸즈 등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149-9593

CALVIN KLEIN



**칼빈클라인 시크** 칼빈클라인 워치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시크' 워치를 출시한다. 다이얼의 가장자리에 메탈리제이션 공법으로 컬러를 입혀, 베젤처럼 보이도록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얇고 가벼운 케이스에 화이트 새틴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한 스타일을 극대화했다. 문의 02-3149-9562